

# 희년 문서

## <제목 차례>

머리말 .....	3
<b>I. 희년 신앙과 희년 문서가 나오기까지 .....</b>	<b>6</b>
1. 배경 .....	6
2. 50년 역사의 창조적 계승 .....	7
3. 변화된 세계와 우리의 전망 .....	9
<b>II. 희년 신앙과 삶 .....</b>	<b>11</b>
1. 희년 문서 .....	11
2. 희년에 대하여 .....	11
3. 희년 신앙의 내용 .....	12
4. 희년 문서의 구조 .....	13
<b>III. 희년 지침 .....</b>	<b>14</b>
1. 총론 : 교회에 대하여 .....	14
1) 목회에 대하여 .....	17
2) 선교에 대하여 .....	19
3) 교육에 대하여 .....	20
4) 생활에 대하여 .....	22

2. 지침 .....	23
1) 목회 지침 .....	23
2) 선교지침 .....	29
3) 교육 지침 .....	36
4) 생활 지침 .....	44

## 머리말

### 2003년 회년신앙 선언

우리는 이 땅에서 복음의 자유와 해방을 일군 지난 50년의 역사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축하하며, 교단의 새로운 앞날 50년과 이 세계의 새로운 천년을 희망으로 맞이한다. 온 우주와 생명을 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시간과 삶을 주관하시며, 항상 구원을 향해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이다. 무궁한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변화된 세계와 삶 가운데서도, 새로운 경륜으로 구원을 펼쳐 가실 것이며, 이 일을 위해 우리를 또 다른 모습으로 불러 쓰시리라 믿는다.

따라서 우리는 지난 50년의 발자취를 돌아보며, 앞으로 50년을 살아갈 신앙의 지침을 마련하는 동시에, 새천년에 접어든 이 세계에 희망을 선포할 수 있는 그리스도교의 구원 전망을 찾아 밝히려고 한다.

우리는 이천 년 동안 이어온 그리스도교 신앙전통과 세계 개혁신앙 전통을 이어받으면서 4대문서([신앙고백서](1972), [선교정책](1973), [사회 선언 지침](1971), [교육정책](1969))와 제5문서(1987년)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주체적으로 고백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선교를 펼쳐왔다. 이제 우리는 지금까지의 신앙과 삶을 발판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려고 한다. 새천년이라고 하는 변화된 상황 속에서, 다시금 우리들의 신앙전통을 확인하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의 감동과 인도를 받아 새롭게 구원을 선포하고, 이에 따른 구체적인 여러 신앙의 지침을 마련하여 또다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고자 한다.

#### 회년 선언

새 역사 50주년을 맞아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린다. 우리는 우리가 물려받은 표준 신앙고백과 신조들을 우리 신앙의 터전으로 삼으면서도, 종교개혁과 개혁신앙의 정신에 따라, 그 어떤 신조나 교리보다도 성서와 하나님의 구체적인 구원역사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려고 한다. 성서와 하나님의 구원 활동이야말로 믿음의 터전이자 교회의 근거이며, 교회 일치와 기준이자 선교의 이유가 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여기에서 '회년 신앙'을 선언하려고 한다. 회년은 오십 년이라는 시간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다. 이미 하나님의 백성들이 역사 속에서 누려온 구원과 해방의 경험이며, 성서 전체가 이 땅에서 꿈꾸며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의 궁극 목표는 영원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이다.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아직은 완전치 못한 세계 속에서 보이는 형태로 이루는 하늘의 삶이 회년이다.

우리는 회년신앙이 우리의 새로운 길잡이요, 장차 전 그리스도교를 함께 묶어주며, 이 인류를 구원할 성서적 신앙이며, 회년을 구현하는 것은 하나님 백성들의 꿈이며, 희망 안에서 주어진 실천 과제라고 믿는다. 레위기에서 선포되고(레25) 예수께서 은총의 해로 이어받으

신(눅4:18~19) 희년의 정신과 실천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려는 예배의 삶인 동시에 이 세계를 정의롭고 평화롭게 하기 위한 진리의 실천이다.

하나님은 “내가 기록하니, 너희도 기록하게 되어야 한다”(레11:45)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룩한 삶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영역에서는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정의로운 관계로 나타난다. 무엇보다 희년은 모든 피조물이 먼저 자신의 죄를 뉘우치며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회개와 겸손에서 출발하며, 자연의 안식을 통한 생태의 회복과 가난한 사람들의 안녕에 관심을 갖는다. 그러기에 희년은 총체적 구원과 평화에 대한 신앙이요 실천이다.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께서 내신 자연의 질서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이웃과 더불어 삶으로’써 이 세계 안에서 온전한 평화를 누리기를 꿈꾸며, 이 희년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에 우리의 간절한 소망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주시기를 기원한다.

## 희년신앙 선언

희년신앙은 <은총·생명·섬김의 신앙>이다. ‘은총·생명·섬김’은 사킴(코이노니아) 가운데 계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남(경험함)이요, 또한 신앙고백의 내용이요, 교회가 이루어야 할 삶이다.

은총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은혜와 생명과 복이다. 이 은총은 예배를 통해 경험하고 누리게 된다.

생명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 사는 모든 피조물의 복된 삶이다. 이 생명은 하나님을 향해 가는 순례를 통해 자라고 완성된다.

섬김은 은총을 통해 충만해진 생명 능력의 표현이며 감사의 행동이다. 이 섬김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루어진다.

‘은총·생명·섬김’은 삼위일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지만, 우리가 신앙 가운데서 받고 누리고 실천할 수 있도록 허락된 것이기에 전체가 은총이다. 하나님의 은총은 우리의 어떠한 기준으로도 제한할 수 없다. 때문에 ‘은총·생명·섬김’의 신앙은 온전한 친교(코이노니아)를 믿고 꿈꾸며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다. 거룩한 나라와 이 세상이, 하나님과 모든 피조물이, 전통이 다른 교회들이, 인종과 언어와 풍습이 다른 모든 문화와 민족들이 다 하나님의 품에서 어울려 살 것을 믿는다.

## 희년실천 선언

희년신앙은 교회의 삶을 위한 실천적인 신앙이다. 교회는 희년을 구체적으로 사는 공동체이다. 초대교회가 그러했다. 초대교회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가운데 은총을 받았으며, 떡과 물건을 서로 나누며, 그리스도의 생명을 충만히 누렸다. 받은 여러 은사를 통해서 섬김을 실천했다. 따라서 우리는 <은총·생명·섬김의 희년 신앙>을 교회 교역의 구체적인 원리와 지침으로 삼으려고 한다.

우리는 교회의 전체 교역을 목회, 선교, 교육, 그리스도인의 생활로 나누고 회년의 정신에 따라 지침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리의 목회는 ‘말씀 목회’이다. 성서 말씀을 통해서 교인들의 삶을 진리로 인도하고, 치유하고, 믿음을 키우며,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육성한다. 목회의 여러 방법도 말씀과 복음에 비추어서 개발하고 사용함으로써 세속화된 목회를 바로 잡으려고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리스도만이 교회와 목회의 참된 반석이 되신다.

우리의 선교는 ‘생명 선교’이다. 교회가 세상을 위해 하는 모든 선한 일들과 정의로운 싸움은 구원의 일들으로써, 이 세상의 생명을 풍성케 한다. 또한 교회의 선교는 세상의 여러 선한 운동과 연대하지만, 언제나 생명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섬기는 신앙의 일임을 확인한다.

우리의 교육은 ‘은총 교육’이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사랑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게 하는 것으로서 신앙 교육의 핵심이다. 이 은총에서부터 하나님을 늘 모시고 사는 영성이 생기며, 세상을 해방하는 능력을 얻게 된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섬김 생활’이다. 우리는 회년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예배를 통해 은총을 누리며, 말씀의 꿀을 먹고, 생명 선교에 참여한다. 예배를 통해 은총을 경험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늘 섬기는 생활을 한다. 그리하여 자신의 인생 안에서, 또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간다.

이와 같은 회년의 교역지침들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교회로 거듭나게 하여, 이 세상을 위한 생명의 빛이 되고 하고, 우리들의 삶에 의미와 기쁨을 주리라고 믿는다.

## **회년행진 선언**

우리는 이 회년신앙과 그 지침들이 선언이 아니라 끝없는 실천으로 드러나기를 바란다. 이 <은총·생명·섬김의 회년 신앙>이 우리의 모든 삶에 적용이 되도록, 우리의 예전, 교육, 헌법, 신학교육을 새롭게 마련하려고 한다. 또 목회자 사이에, 교회 사이에 회년의 정의와 평화가 제도로 자리잡도록 하나씩 개혁해 가려고 한다.

우리는 이 회년의 행진을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역사를 펼쳐 가는 제2의 종교개혁으로 선언한다. 이 회년 신앙과 실천을 하나님께서 손수 이끌어 주셔서, 이 신앙과 실천이 모든 교회와 인류의 행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 드린다.

# 1. 희년 신앙과 희년 문서가 나오기까지

## 1. 배경

2003년, 올해로써 우리 한국기독교장로회는 창립 50주년을 맞습니다. 우리는 교단의 희년을 맞아 지난 역사를 돌아보며, 자랑스러운 전통은 이어받으면서도, 새로운 전망으로 앞으로 50년을 이끌고 나갈 교단의 신앙과 삶을 제시해야 할 과제를 갖게 되었습니다.

큰 눈으로 볼 때, 지금은 인류 문명이 '현대'를 넘어 영성과 생명의 새 시대를 향해 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이천 년 동안 발전해서 오늘에 이른 인간 중심, 가부장 중심, 물질 중심, 이성 중심의 현대 문명이 근본적인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런 창조적인 변화를 그리스도교가 주도해서 인류의 미래를 하나님의 나라로 향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작게는 교단의 희년을 맞이하고 크게는 문명의 전환을 맞이하면서, 근본적이면서도 창조적인 그리스도교의 새로운 구원의 전망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 우리 교단이 이 민족사 안에서 또다시 구원의 빛으로 서면서도, 대내적으로 우리 자신의 신앙과 삶을 풍요롭고 생생하게 만드는 구체적인 내용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제83회 총회 때부터, 지난 시기에 우리 교단의 신앙과 삶을 제시해 온 「제5문서」에 대한 검토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결과 제84회 총회에서는 제5문서의 수정이 아니라, 교단의 희년에 맞추어, 새로운 신앙과 삶의 지침을 담은 문서를 마련하자고 결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86회 총회에서 2년여 동안의 연구와 토론을 거쳐 마련된 '희년 문서 제안서'를 제출했고, 그 제안대로 문서를 집필하도록 위임받았습니다.

제5문서를 검토한 '제5문서 사회선교정책 재검토 위원회'에서부터 희년 문서 제안서를 마련한 '새천년 위원회'에 이르기까지, 우리 교단의 공문서들과 정책 모임들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철저히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단과 세계의 그리스도교를 이끌어갈 앞날의 신학과 삶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고 토론도 했습니다. 또한 수많은 설문조사를 하였고, 이를 정리하였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다음과 같이 의견을 모으고 방향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교단은 세계교회의 신학적 흐름을 형성한 <하나님의 선교 신학>과 <정의·평화·창조 질서 보전 신학>을 수용하면서 우리 민족사의 아픔과 민중의 고난받는 현실을 신앙과 생활의 중심에 두었다. 이제 우리는 이런 정신을 이어받으면서, 사회선교만 아니라 교회의 신앙을 키우는 믿음 훈련도 강조해야 한다. 또한 우리의 영성 터전에 뿌리를 두면서도 이미 다가온 영성·생명 시대에 필요한 구원과 선교와 신앙의 삶을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과제를 희년 신앙으로 정리하고 실천 지침을 제시해야 한다. 희년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모든 피조 세계의 관계를 바르게 하는 총체적 구원 대한 신앙이요 실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희년 신앙은 우리 교단의 예배와 삶을 강화하는 동시에, 양분된 그리스도교의 두 흐름(경건 대 해방)을 통합할 뿐 아니라 생태적 전망까지 제공하기에 한국교회와 세계교회가 인류구원을 위해 함께 나갈 수 있게 하는 신앙이 될 것이다.

이런 방향을 가지고 희년 신앙과 삶을 안내하는 희년 문서가 마련되었습니다. 이 희년 문서는 몇몇 사람의 창작물이 아닙니다. 그동안 우리 교단이 쌓아온 신앙과 삶에서 이미 그

방향이 예고된 것이며, 신학자와 목회자들과 많은 평신도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함께 성서를 읽고 토론하면서 엮어낸 공동신앙 고백적 작품입니다.

## 2. 50년 역사의 창조적 계승

지난 50년, 우리 교단의 역사를 돌아보며 새로운 신앙과 삶을 준비하는 가운데, 우리는 우리 역사 안에 흐르고 있는 자랑스런 정신이 있음을 새삼 확인했습니다. 이런 정신은 회년 신앙과 삶을 담은 회년 문서에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지난 제5문서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제5문서는 그 이전의 4대 문서의 정신을 이어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계 개혁파 장로교회의 복음주의적 신앙전통을 이어받아 믿음의 조상들이 전해준 신앙 고백문들과 신조의 유산들을 귀중하게 전승하면서 교단 새 역사 30년 동안 신앙고백과 선교 및 교육정책을 구체적으로 연구하고 [신앙고백서], [선교정책], [사회선언지침], [교회교육정책]을 채택하여 우리의 신앙노선과 선교지침으로 삼아왔다.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선교, 교육, 사회정책을 보완하여 다가오는 교단 새 역사, 회년 50년을 전진하려 한다.”(한국기독교장로회 연혁, 정책, 선언서, 1974, 14쪽.)

이 계속되는 역사를 1996년 ‘21세기 선교정책 협의회’에서는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단은 1970년을 전후하여 4대 문서를 또 80년대에 들어서는 교단 제5문서를 통해 선교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선교 신학’을 기초로 수립한 선교정책은… 80년대 중반에는 생태계 파괴와 공해 문제가 부상하자 ‘정의·평화·창조 질서 보전’ 문제를 선교 과제로 수용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기장의 선교는 시대의 변화를 내다보면서 시대의 파수꾼으로 예언자적 역할과 사명을 잘 감당해 왔습니다.”([21세기 선교정책 협의회 자료집], 1996, 56, 7쪽.)

이런 한국기독교장로회의 정신과 신앙과 신학의 정체성의 뿌리는 ‘제38회 호헌 총회 선언서’에서 밝힌 신념과 정신에서 출발합니다.

- 우리는 온갖 형태의 바리새주의를 배격하고 오직 살아 계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 복음의 자유를 확보한다.
- 우리는 전 세계 장로교회의 테두리 안에서 건전한 교리를 수립함과 동시에 신앙양심의 자유를 확보한다.
- 우리는 노예적인 의존사상을 배격하고 자립자조 정신을 함양한다. 그러나 우리는 편협한 고립주의를 경계하고 전 세계 성도들과 협력 병진하려는 세계교회 정신에 철저히 하려 한다.”([기장 신학의 회상과 미래], 기장신학연구소, 1993, 48쪽.)

이 정신이 「4대문서」와 「제5문서」를 흐르며 우리의 삶을 다음과 같이 창조적으로 변화시키고 담아내었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의 역사와 4대문서와 제5문서의 관계는 다음과 같습

니다(같은 자료, 52쪽).

역사 단계	삶의 특징	문서채택	열
제1기(1953-68년)	엑소더스 공동체로 교단을 조직해 감		조선신학교의 교육 이념과 제38회 호헌 총회 선언서 지도이념
제2기(1969-73년)	하나님의 선교신학에 기초한 삶	4대문서	1972년 “우리의 신앙고백”
제3기(1973-93년)	하나님의 선교신학을 정의·평화·사랑·창조 질서 보전으로 이어받음	제5문서	1987년의 신앙선언

우리는 50년 역사를 통해 흐르는 우리의 창조적인 정신을 성서적 해방전통, 하나님의 선교에 뿌리를 둔 실천성, 우리의 역사 문화 속에 있으면서도 세계와 호흡하는 삶, 일치 추구하는 삶으로 평가했습니다([21세기 기장 선교정책 협의회], 1996년, 116~118쪽). 이와 같은 정신을 거듭 확인하면서, 교단의 희년과 새천년을 맞아, 우리의 신앙과 삶을 담은 새 문서인 희년 문서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자랑스러운 정신을 비판적으로 이어가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 신앙을 중심으로 평등하고 평화로운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공동체 안에서 여러 문제가 생겼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단도 자유와 해방의 복음으로 출발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왔지만, 50년이 지나면서, 우리 안에 여러 문제를 갖게 되었습니다. 희년의 선포는 공동체의 죄의 고백에서 출발합니다. 따라서 희년 신앙을 고백하기에 앞서, 우리는 그동안 우리 안에 생긴 문제들을 찾고 반성해야 합니다.

**첫째로,** 그동안 우리는 사회구원에는 큰 관심을 기울인 반면 교회를 육성하고 교인들의 신앙을 훈련하는 일에는 소홀한 면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역사화와 사회화를 지향하는 하나님의 선교신학과 민중신학을 통해서 신학의 자리를 교회 울타리 안에서 세상 한복판 삶의 구체적인 자리로 옮겨놓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복음으로 사회 개혁을 추진할 새 사람을 기르는 중생 운동에는 관심을 크게 기울이지 못했습니다. 영적 자유의 힘, 사랑의 힘, 믿음의 힘으로 훈련된 성직자와 신도를 기르는 일에는 다소 소홀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믿음의 반석을 든든히 세우지 않고 세상으로 흩어지는 선교를 강조하다 보니 교회성도 약화되었습니다. 교회성이 약해지면 세상을 향해 증언하는 힘도 약해지게 됩니다.

**둘째로,** 그동안 우리 교단이 받아들인 <하나님의 선교신학>에 대해서도 더 큰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세계 제2차 대전 이전까지의 서구 교회의 식민지 선교에 대한 반성과 제3세계 교회들의 정치적 독립이 맞물려 등장한 새로운 선교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제도적 교회를 하나님 나라와 동일시하고, 지나치게 유럽 중심적 사고의 틀에 사로잡혔던 이전의 선교신학을 비판적으로 극복하려는 노력 가운데에서 생겨났습니다. 하나님의 선교신학은 역사 한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활동에 주목하게 되었고, 선교의 목적은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음을 밝혔습니다. 우리 교단 역시 이 신학을 받아들였는데, 하나님의 선교신학은 그리스도교 전체 신학의 일부임에도 우리는 이 신학 하나만을 강조했습니다. 실천 면에서 보면 한국교회의 선교가 삼위일체적이 아니고 삼위 분권적으로 되었습니다. 성부 중심의 교리적 절대주의 선교, 보혜사 성령 중심의 열광주의 선교, 성육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사회 실천적인 선교가 나누어져 이루어졌는데, 우리 교단은 성자 중심의 선교에만 치중해서 그 건강한 균형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선교신학은 교회에 굳게 바탕을 두면서도 더욱 급변하는 21세기의 세상을 향해 증언해야 하는 과제를 갖게 되었습니다.

**셋째로,** 우리 안에 쌓인 부정적인 체질에 대해 반성합니다. 앞서가는 신학운동과 더불어, 7~80년대 독재상황 속에서 민중신학을 탄생시키며, 우리 교단은 한국기독교장로회로서의 특징을 갖고 진보 교단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운동을 통해서 자기 정체성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교의 정체성과는 갈등을 빚은 면이 있고, 독단적인 자세 때문에 보수적인 한국교회와 함께 가지 못하고 스스로 자기 안에 갇히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반성의 소리도 있습니다. 또한 복음을 사회적 차원에서 해석하고 예언자적인 삶을 살 때, 그것은 사회적 정치적 행동까지 포함하지만, 정치적 행동으로써 복음의 힘을 발휘하려고 하고 할 때 신앙을 세속정치와 하나로 아는 위험을 갖고 맙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랑스러운 신앙 전통을 이으면서도, 이렇게 우리에게 부족한 점들을 채워가고 고쳐가야 합니다. 이것이 지난 50년 역사를 창조적으로 계승하는 일입니다.

### 3. 변화된 세계와 우리의 전망

우리가 삶을 돌아보고 되새기는 동안 우리가 사는 세계에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첫째로,** 세계가 변했습니다. <하나님의 선교신학>이 수용된 「4대문서」의 시대 상황은 (1970-80년대) 급속한 산업화로 인한 인간과 자연의 위기, 물질주의와 개인주의의 팽배, 교회의 자유로운 신앙고백과 선교가 억압된 현실 등이었습니다. <정의·평화·창조 질서 보전 신학>이 수용된 「제5문서」의 시대 상황(1980년대 후반~1990년대)으로는 정치 경제적 양극화 현상, 절박하게 인식되기 시작한 분단 현실, 인간성 상실, 한국 전통문화 붕괴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5문서」 이후, 삶의 상황이 빠르면서도 철저하게 변화하면서, 새로운 신학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 혁명으로 인류는 근본에서 새로운 의사소통 체계와 가상현실의 공간 안에 살게 되었습니다. 또한 세계화와 더불어 신자유주의 질서 체제 안에 세계가 편입되면서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새로운 지배와 종속이 어느 때보다 무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편 인간의 편리한 삶을 위해 봉사하던 기술은 그 자체가 우상이 되어서 제멋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본의 노예가 된 생명과학의 발전으로 생명이 왜곡되고 생태계가 철저히 파괴되었습니다. 문명사로 보면, 우리는 현대를 넘어 '영성·생명의 시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나아가 민족적으로는 분단이 아닌 평화와 통일시대에 들어섰습니다.

**둘째로,** 신학이 새롭게 모형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급박하게 변화된 21세기의 상황 때문에 다음과 같이 새롭게 구원과 복음의 과제를 담은 신학의 모형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교 신학에서 생명과 영의 신학이 되어야 한다. 삼위 분권적인 하나님의 선교에서 삼위 일체 코이노니아 중심의 신학으로 넘어가야 한다. 대결 시대의 해방신학의 관점에서 상생적 삶의 신학의 관점으로 넘어가야 하며, 하나님의 선교 신학을 구원사와 사회-정치적 지평에서만 아니라 창조사와 문화-종교적 지평에서도 이해해야 한다.’

위와 같은 신학의 모형변화를 통해서 21세기의 구원과 해방에 필요한 다음과 같은 언어들을 찾을 것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정보기술과 지식으로 생긴 새로운 빈부와 계급 문제를 풀 해방 언어가 필요하다. 가상현실, 환각 세계, 개인의 고립된 공간으로부터 살아 있는 생명 경험, 관계 공간으로 해방할 구원의 언어가 필요하다. 생명공학을 이용한 반 창조 질서 윤리로부터 해방하는 생명의 언어가 필요하다. 영, 기(氣), 생명, 우주와 같은 새천년기 문명의 질문들에 대해 성서와 그리스도교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생기, 숨, 성령), 창조신앙, 우주 차원의 묵시적 종말론에서 찾아서 대답하는 영성 언어가 필요하다.’

**셋째로,** 그동안 우리 교단이 소홀히 해왔거나, 문화적인 변화 때문에 다시금 강조해야 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교회의 부흥과 전도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개척교회, 해외 선교를 포함해서 교회를 건강하게 자라게 하고 가꾸는 일에도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전반적으로 한국 교회에 젊은 층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출산의 감소 탓도 있지만 젊은 세대가 그리스도교 신앙을 멀리하는 경향도 그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따라서 젊은이 선교나 목회가 개발되어야 하고, 이들에게 다가설 문화선교를 강조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 사회도 삶의 질이 높아져 복지사회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교회는 복지선교에도 큰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변화된 세계와 새로운 세기의 구원의 과제를 앞두고, 지난 50년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앞으로 계속 이어가야 할 우리들의 자랑스런 전통을 확인했습니다. 우리들에게 부족한 면과 회개해야 할 점도 찾았습니다. 미래, 전통, 반성, 이 세 요소를 가지고 씩씩하면서 우리는 이런 앞날의 신학적인 전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가난하고 고난받는 생명들에 대한 관심과 선교는 계속 강조되어야 한다.’

둘째로, 새천년에 교단의 삶을 이끌 신학은 다음처럼 여러 면을 함께 아우른다. 한국적 신학과 개척교회 신학과 해방의 신학들과 탈근대주의 신학들을 모두 아우른다. 신학의 교회성(영성)과 운동성을 그리고 이론성과 실천성을 하나로 아우른다.

셋째로, 이상의 원리를 가지고, 교단의 50주년을 맞아, 회년의 신앙과 삶으로 정리한다.’

## II. 희년 신앙과 삶

### 1. 희년 문서

우리 교단은 60년대와 70년대에는 <하나님의 선교신학>을, 80년대와 90년대에는 <정의·평화·창조 질서의 보전> 신학을 우리 상황에 받아 적용시켜서 교회의 삶의 방향을 정하고 선교 정책을 펴왔습니다. 여전히 이런 신학은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전과는 전혀 새로운 상황으로 세계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국민국가와 세계질서를 근본에서부터 변화시킬 (경제적, 문화적) 세계화 현상과 양극화, 정보통신 혁명으로 인한 삶의 변화와 정보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빈부와 계층 문제, 생명공학의 급진적 발전과 생태 윤리의 문제, 노동의 지구적 이동과 문화 종교적 갈등의 심화, 대량생산과 대량소비 문화와 영성의 황폐, 고령화와 세대 간의 갈등, 인권 문제와 더불어 생명들의 권리문제 등 새로운 시대의 도전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습니다. 이런 세계에 응답할 수 있는 성서의 구원 전망이 <희년>입니다.

희년 신앙이 모든 차원의 문제를 포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난 50년 동안 기장의 선교신학을 창조적으로 계승 발전시키면서, 생태 질서와 인간 질서가 같이 파괴된 이 민족의 모순을 풀어 가는 동시에, 세계 교회 운동과 흐름을 같이한다는 뜻에서 '희년'이야말로 21세기를 이끌어갈 성서의 구원과 해방경험이라고 믿습니다. 따라서 기장의 50년 역사를 정리하고 새로운 천 년대를 이끌어갈 신앙을 <희년 신앙>으로 정하고, 희년 신앙과 삶의 지침을 제시합니다. 이런 희년의 신앙과 삶을 선언하려는 것은 단지 50년의 역사라고 하는 시간적인 이유 때문이 아닙니다. 희년의 신앙과 삶 안에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예배와 이웃과 세계를 위한 총체적 구원이 담겨 있어서, 희년 신앙이 모든 시대를 넘어서는 본질적인 교회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2. 희년에 대하여

성서가 증언하는 희년은 다음과 같이 예배적이고 공동체적인(교회의 신앙적) 차원과 생태와 역사를 해방하는(사회적 실천) 차원을 함께 갖습니다.

첫째로, 희년은 하나님 신앙과 예배 공동체의 회복을 강조합니다. 희년 법은 안식년 법과 관련되어 성결법전(레25장)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즉 희년 법의 뿌리는 하나님 신앙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길에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삶의 회복을 위해 속죄가 희년의 출발이 됩니다. 이 희년의 해방을 실천하면 다시 예배드릴 자격이 있는 공동체로 회복됩니다.

둘째로, 희년은 총체적 구원과 해방을 강조합니다. 희년법은 노예 해방과 귀향, 토지 소유권의 회복과 빛의 탕감을 포함합니다. 땅의 휴경을 통해서 생태를 포함한 전 지구공동체의 생존권, 생명권을 함께 추구합니다. 이 총체적 구원과 해방의 희년을 1995년 한국교회가 이 민족의 평화 실현을 위해 선언했으며, 이 희년 운동은 세계교회의 운동으로 그 지평이 넓어졌기에 희년 신학은 세계 문제를 향해 가는 한국 신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구약성서의 희년을 '은총의 해'(눅4:18, 19)로 받아 선언하고 일하셨기에 희년의 선포는 곧 복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셋째로, 희년은 가난한 사람을 중심으로 함께 사는 길을 강조합니다. 희년법을 다듬은 집단은 포로기 이후에 귀향한 가난한 레위인들입니다. 이들의 관심은 가난한 동족과 쫓겨난 생명들입니다. 이 정신을 이어받아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언하셨습니다. 이처럼 희년은 가난한 생명을 위한 신앙이요 실천이면서도, 신앙적인 회개와 결단 안에서, 자발적인 포기과 나눔을 통해 함께 살자는 상생(相生)과 평화가 그 내용입니다.

넷째로, 희년 정신은 자기 개혁을 지향합니다. 희년법은 포로기 이후, 귀환한 공동체의 국가건설 이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안에 이미 민족개혁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이 희년은 유대 민족주의라는 한계를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를 거치며 예수님의 희년 선포에 이르러 희년은 세계사적이고 종말론적인 성격을 띠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희년의 신앙은 끊임없이 온 생명을 향해 자기 개혁을 촉구하고 실현합니다. 이런 희년의 정신은 하나님과 이웃과 자연 앞에서 모든 그리스도교인과 교회가 철저히 거둬들이고 새 천년에 구원과 해방의 일꾼이 될 것을 요구합니다.

### 3. 희년 신앙의 내용

희년 신앙은 <은총·생명·섬김의 신앙>으로 풀어 말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1995년 이후 논의된 희년 신학은 대부분 사회-경제적 맥락에서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희년의 신앙 공동체적이고 예배적인 동기가 약하며, 해방실천의 강조 때문에 생명의 선물로 주어진 은총의 요소가 약합니다. 그러므로 희년을 ‘은혜의 해’로 받은 누가복음의 통찰이 필요합니다.

둘째로, 전통적으로 두 단어(예를 들어 ‘자연과 계시’, ‘복음과 문화’)는 갈등과 대립을 나타냅니다. 대립을 조정하는 제3세력이 있으면 세 요소는 조화와 연합 속에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은총, 생명, 섬김이 삼위일체 친교 가운데 있을 때 온전한 그리스도교 신앙이 됩니다.

셋째로, 은총은 신앙과 삶의 성부적인 면을 담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은혜와 구원을 나타냅니다. 신학적으로는 이천 년 동안의 서구 그리스도교 신학, 거기서 이어온 개혁교회 신학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 은총은 예배를 통해 경험됩니다.

넷째로, 생명은 신앙과 삶의 성령적인 면을 담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모든 피조물 가운데 일어나는 충만한 생명을 나타냅니다. 신학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배달겨레에게 주신 영성(개성)에 뿌리내리는 한국적 신학, 피조물의 다양성과 조화의 아름다움을 다루는 탈현대주의 신학들을 담습니다. 이 생명은 은총을 향해 나아가는 순례를 통해 자랍니다.

다섯째로, 섬김은 신앙과 삶의 성자적인 면을 담습니다. 은총으로 생명을 이루는 실천과 선교를 나타냅니다. 신학적으로는 인간을 포함한 탄식하는 피조물의 구원을 다루는 모든 해방의 신학을 담습니다. 섬김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십자가를 지는 사랑으로 이루어집니다.

여섯째로, 은총만을 강조하면 원리주의와 배타적인 신앙과 선교에 빠질 위험이 있고, 생명만을 강조하면 영지주의적인 신비주의와 열광적이고 탈세상적인 개인주의 신앙과 선교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섬김만을 강조하면 사회 정치적 영역을 하나님 나라와 동일시하며 인본주의 혁명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은총·생명·섬김’ 세 요소가 친교 가운데 있

어야 합니다.

#### 4. 회년 문서의 구조

회년 문서는 지난 신앙의 문서들과는 다른 구조를 갖습니다. <4 대문서>의 열은 <1972년의 신앙고백>이었고, 채용한 신학은 <하나님의 선교신학>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선교정책’, ‘사회선언 지침’, ‘교육정책’을 마련했습니다. <제5 문서를 보면>, 그 열은 <1987년의 신앙선언>이요, 채용한 신학은 <정의·평화·창조 질서 보전> 신학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교회선교’, ‘사회선교’, ‘교육정책’을 마련했습니다.

이 두 문서는 그 내용은 좋으나 교회에 대한 관심이 부족합니다. 교회선교와 사회선교의 이해와 구분이 애매하며, 선교에는 사회적인 관심만이 주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목회나 예배에 대한 관심도 약합니다.

회년 문서의 열은 <2003년 회년 신앙선언>입니다. 그 신학은 <은총·생명·섬김의 신학>입니다. 이에 따라 회년 교회의 ‘목회 지침’, ‘선교지침’, ‘교육 지침’, ‘생활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이 지침에 따라 각 영역별로 구체적인 실천 구조와 방법들을 개발해서 훈련하고 실천해 가야 합니다. 이 회년 문서를 출발로 신앙고백과 헌법, 예식서, 규칙과 제도뿐만 아니라 목회와 교육, 평신도 양육과 그 교재에 이르기까지 회년 신앙에 맞추어 일대 혁신을 이룸으로써 우리 교단이 새로워질 뿐 아니라 제2의 종교개혁이 온 누리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 III. 희년 지침

#### 1. 총론 : 교회에 대하여

레위기 25:8~55, 누가복음 4:18~19, 사도행전 2:43~47

##### 1) 희년 공동체인 교회

이스라엘 백성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자유와 해방의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말씀에 따라(신5:32, 33), 하나님만 섬기며(신10:12-15), 이웃에게 사랑과 정의를 행하면(신10:16~19) 이스라엘은 언제나 평화로운 공동체를 이루며 살게 됩니다(신28:1~14). 이런 하나님의 공동체의 꿈이 희년 신앙을 통해 총체적으로 제시되었고(레25장), 이 희년 공동체의 꿈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는 신앙을 통해서 초대교회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희년인 '은혜의 해'(눅4:19)는 종말에 있을 사건이 아니라, 역사 안에서 지금 이루어지는 현실이며(눅4:21), 교회 공동체가 이를 실현했습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희년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여인 새로운 질서의 공동체로서(막3:31~35), 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 가운데에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소유를 나누는 정의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이런 신앙의 생활로써 영적으로나 사회경제적으로 평화롭고 풍요로운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행2:43~47, 4:32~37). 이로써 교회는 영적이고, 보이지 않으며, 초월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불완전한 역사 가운데서 눈으로 보고 삶으로 누릴 수 있게 하는 구체적인 은총의 표지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교회를 보고 못사람들이 호감과 경외심을 갖게 되었고(행2:47, 5:11),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안팎에서 놀랍게 늘게 되었습니다(행2:41, 42, 6:7). 따라서 교회의 자람은 성장 전략의 결과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에서 비롯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가 넓혀진 결과입니다.

교회는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 은총의 표지이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머리오(엡4:16), 몸이요(엡1:23), 반석이 되십니다(마16:18). 늘 그리스도께서 몸소 피로 사시고 돌보십니다(행20:28).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 이 세상의 온 생명이 하나로 얽히고 자라 주님의 성전이요, 성령이 거하시는 처소가 될 수 있습니다(엡2:21~22). 이런 교회가 이 땅에 있기 때문에 이 세계는 늘 하나님을 볼 수 있으며, 구원의 희망 가운데 있게 됩니다.

##### 2) 교회의 삶

###### (1) 교회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성례전을 행하는 예배는, 하나님의 은총을 전달하고, 드러내 보이고, 누리게 하는, 하나님 자신의 계시와 구원의 수단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교회는 영적이고 초월적인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은총을 보이는 구름 기둥과 불기둥으로서 경

힘하게 됩니다(출13:21~22)

또한 예배를 통해 교회는, 세상의 일부요, 세상과 여러 관계 속에 있으면서도,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갖습니다. 모든 세상의 기관이나 모임과 달리 교회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따라서 희년 공동체인 교회는, 희년을 선포한 이스라엘처럼, 이 세계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 예배를 드림으로써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합니다(레25:8~10).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정의로운 삶을 통한 참 경건을 이루어 갑니다(미6:6~8, 마5:23~24).

## (2) 교회는 선교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교의 예배는 반드시 파송과 선교로 이어집니다(마28:16~20). 그리스도께서 몸소 섬기는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사건이 예배의 내용을 이룹니다(그리스도 찬가. 빌 2:6-11). 이 사건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와 이 세계를 섬기고 해방하는 정의로운 삶이 하나로 얽혀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 얻는 구원의 능력과 은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이 내시고 사랑하시는 세상을 위해 쓰이게 됩니다. 이것이 '섬김'이요,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섬기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말씀을 통해 세상을 경고하는 일, 악과 싸우는 일, 약한 생명과 가난한 이웃을 돌보는 일, 복지를 제도로 마련하는 일, 건강한 문화와 가치관을 제시하는 일 등이 다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그럼에도 이 모든 선교활동은 몸을 굽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그리스도의 겸손과 사랑의 희생(요13:1~16)과 하나님의 은총과 능력을 구하는 기도에서 출발합니다(막9:28~29).

## (3) 교회는 신앙 양육 공동체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내신 귀한 것이요, 이 땅에서 기쁨으로 누릴 복된 것입니다(창 1:28).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자라나야 할 영적인 것이며(시42:1) 하나님의 영광과 이 세상의 평화를 위해 바쳐야 할 도구입니다(고전10:31).

그러기에 교회 공동체는 언제나 생명과 삶을 축하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태어나서 숨질 때까지 전 생애에 걸쳐, 신앙을 통해 삶의 아름다움과 기쁨을 누리도록 돕습니다. 또한 신앙 양육 공동체인 교회는 제자직의 훈련과 영적 생활을 통해 그 심령이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도록 기릅니다(고전3:16~17). 동시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허락하신 은사들을 개발하여 교회를 섬기는 직분을 맡길 뿐 아니라(고전12:4~11), 구체적인 직업과 일을 가지고 세상을 섬기는 청지기로 기릅니다(빌2:4). 교회의 이와 같은 신앙 양육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와 세상을 향한 봉사가 구체화 됩니다.

## (4) 교회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입니다

희년 공동체인 교회는 거룩과 세속을, 교회와 정부를, 신앙과 삶을 날카롭게 구별은 하되 결코 두 영역으로 구분하여 나누지 않습니다. 교회는 언제나 예배를 통해 자신이 거룩한 공동체임을 자각하면서도(롬8:29~30, 12:1~2) 받은 은혜와 구원의 능력을 가지고 자기를 낮춥니다. 그러면서 세속화된 모습으로 이 세상의 모든 영역에 나아가 정의를 실현하고 사랑

을 나눔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넓힙니다(행1:8).

또한 교회는 이 땅에 있는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야하는 도상(途上)의 공동체임을 겸손히 깨달아 자신을 절대화하는 오류에서 언제나 벗어나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이 세상에서 거룩한 나라의 누룩이 될 뿐만 아니라, 이 세상과 더불어 하나님 나라를 향해 자라고 변화해갑니다. 하나님 나라로서의 교회는 하나님의 은총과 그 은총을 받아 일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 안에서 온 만물이 온전한 평화를 누리게 합니다(사65:17~25, 계21:1~4).

### 3) 교회의 하나님 나라 표지(標識)

예배 공동체요, 선교공동체요, 양육 공동체요, 하나님 나라 공동체인 교회는 이 땅에서 구체적인 하나님 나라의 표지를 갖습니다.

#### (1) 교회는 은총의 표지를 갖습니다

이 ‘은총의 표지’는 이 세상을 지으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자신 안에 있으며, 세상을 향한 구원 선포를 통해 드러냅니다. 은총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생명의 선물을 뜻합니다. 이 은총은 이 세상의 구체적인 역사 속에서 구원(중생/해방)으로 경험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변화된 이 세계와 문명에 대해서 또다시 구원을 선포해야 합니다.

이 세계는 지금도 물신 숭배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신자유주의 질서와 정보 지식계급의 등장으로 새로운 가난과 억압이라는 전 지구적인 고통이 생겼습니다. 정보통신 기술의 혁명으로 사람들은 가상의 현실(새로운 영지주의)과 개인의 고립된 공간(새로운 개인주의)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성장을 구실로 이루어진 온갖 개발에 따른 파괴와 오염과 공해, 그리고 생명을 조작하는 과학기술 때문에 인간의 존엄과 하나님이 내신 생명 질서와 생태계가 위협 받고 있습니다. 이런 세계에 대해 교회는 새로운 구원을 선언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드러냅니다.

#### (2) 교회는 생명의 표지를 갖습니다

이 ‘생명의 표지’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총을 복으로 누리도록 하시는 성령 안에 있으며’, 우리들이 마음껏 기뻐하고 키우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나눌 수 있겠습니까? 교회는 잔치 공동체입니다. 늘 모여 생을 축하하는 잔치 가운데에서 친교가 일어나고, 화해가 이루어지며, 나눔과 평등이 실현됩니다. 교회는 치유 공동체입니다. 도우시고, 생기를 주시고, 위로를 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통해 몸의 질병이 치료되고, 죄에 빠진 영혼이 거듭나서 그 생명을 아름답게 드러냅니다. 교회는 학습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 실천을 학습함으로써 거룩한 생명을 연습합니다.

교회는 이런 잔치와 치유와 학습 가운데로 온 세상을 초대하여 하나님의 생명을 충만히 회복하고 누리게 합니다.

### (3) 교회는 섬김의 표지를 갖습니다

이 '섬김의 표지'는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생명을 풍성하게 하기 위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구원의 능력이 되었듯이, 교회가 세상을 위해 드리는 사랑과 희생의 봉사 또한 성령 안에서 이 세상을 살리는 능력이 됩니다. 섬김의 표지를 갖는 교회는 은사 공동체입니다. 성령께서 주신 다양한 은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자아를 성장시킬 뿐 아니라, 이 은사들을 조직적으로 개발하고 엮어서 세상을 섬깁니다. 이 섬김을 통해 우리들의 은사가 교회 안에서와 교회 밖 하나님 나라를 향해 자라고 완성됩니다.

섬김의 목표는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무엇보다 교회는 이 땅에 있는 자연 피조물을 포함하여 고난 가운데 있는 모든 약한 이웃에게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자신을 바칩니다. 이 교회의 자기희생을 통해 하나님의 생명이 온 땅 위에 드러납니다.

### (4)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표지를 갖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표지'는 '그리스도의 부활과 새 하늘 새 땅에 대한 궁극적인 희망과 이 희망을 위해 파송받은 제자적 안에' 있습니다. 교회는 그 자체가 이 땅에 구체적인 모습으로 있는 하나님의 나라이지만, 동시에 온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가꾸는 일을 하도록 부름 받은 청지기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 세계를 지배하는 왕국처럼 힘을 행사함으로써가 아니라,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구원 선포와 행동하는 선교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넓혀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해 교회는 전도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은총과 생명과 섬김의 나라로 세상을 초대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합니다.

교회는 교회의 연합과 일치로 향해갑니다. 모든 교회는 그 전통과 예전과 교리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한 하나님의 은총과 생명 가운데 있으며, 그리스도의 섬김을 실천하는 한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의 울타리에 가두지 않고 온 누리를 향해 활짝 엽니다. 모든 생명이 자신의 개성과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 은총의 품 가운데 살도록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는 믿음을 다시 확인합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영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분이시며(요4:23), 무궁한 방법으로 신비롭게 이 세계 안에 계십니다(엡4:6). 그러므로 교회는 온 만물이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있음을 믿으며, 자신을 가꾸고, 이 세상을 향해서도 그리스도의 사역을 겸손히 수행하려는 것입니다.

## 1) 목회에 대하여

에스겔 34:11~31, 요한복음 21:5~18, 에베소서2:11~22

목회는 교회가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은 가장 중요하고 거룩한 직무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택하신 사람들에게 백성들을 위해 일정한 책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온 민족이 복을 받게 하셨고(창12:3), 모세를 통해 고난받는 민족을 해방시켜 하나님

을 예배하게 하셨습니다(출3:13). 예언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을 바로 세우는 책임을 주셨습니다. 구약에서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집을 보살피는 사명입니다(민12:7).

예수님은 이 세상이 하나님을 알고 경배하며 그 뜻대로 살도록 하나님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시고, 치료해주시고, 가르치시고, 격려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을 사도들에게 위임하셨습니다. 따라서 목회는 예수님에게서 위임받고, 사도의 전승에 따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 특별히 훈련받은 이들의 직무이며, 새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인 교회를 일구고, 세우고, 바르게 가꾸는 일입니다(마24:45; 히3:2~6).

예수 그리스도께서 위임하신 이 목회가 오늘날 왜곡되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우선 세속에 편승한 목회를 들 수 있습니다. 목회의 목적은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며,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는 일인데, 그 목적이 세속적인 것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목회는 복음의 확산보다는 교회의 성장만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목회의 수단과 방법들이 주로 세속적인 방법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몸과 마음이 상한 이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간절한 기도와 죄의 용서와 믿음의 고백을 통해 치유하기보다는 심리치료에 맡기려고 합니다. 이로써 목회는 그 능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또 다른 목회의 위기로는 목회 상황의 변화를 들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구조와 가치가 급속히 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단지 생존만이 아닌 인간 존재에 대한 해답을 찾고 있습니다. 주5일제 근무가 자리잡아 가면서 노동보다는 높은 삶의 질과 가치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1, 2차 산업은 퇴조하고, 지식·기술·정보화 등의 3차 산업의 비중이 커지면서 직업을 잃는 이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빈부의 격차가 심화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생산직, 관리직은 퇴조하고, 건강, 의료, 복지, 여가, 교육, 서비스와 같은 인간에 대해 직접적인 관심을 갖는 직업들이 새로운 산업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사회적 역할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어느 때보다도 인간 자체에 관심하는 교회와 교회 시설에 대한 새로운 역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목회 층에도 큰 변화가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를 맞아 노년층은 증가하는 대신 출산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젊은 층은 교회에서 점점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대가족은 이미 해체되었고, 핵가족마저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혼, 출산 기피, 미혼모 증가, 결손 자녀 증가 등 가족 및 가정의 해체가 심각합니다.

이런 위기 가운데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위임받은 목회의 본래 목적을 재확인함으로써 세속주의 목회를 극복하면서도 변화된 목회의 상황에 창조적으로 대응하여 다음과 같이 그 중심을 바로 세워야 하겠습니다.

첫째, 말씀 중심의 목회입니다. 말씀 중심의 목회는 성서 중심의 목회이며,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목회입니다. 말씀 목회를 통해서만 오늘날 세속주의에 물든 목회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나 세속적인 방법은 주님의 교회를 가꾸고 주님의 백성을 돌보는 진정한 능력이 될 수 없습니다. 말씀의 능력만이 진정한 목회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씀 목회를 통해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이심을 새롭게 고백하고(마6:24), 그리스도인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게 할 수 있습니다(벧전2:1~5).

둘째, 교회 공동체 중심의 목회입니다. 교회는 사도 전승을 소중히 여깁니다. 교회는 “선생님은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입니다”(마16:16) 하는 믿음의 고백 위에 서 있습니다. 이 믿음을 고백할 때 교회 공동체가 바르게 형성됩니다. 목회는 이 그리스도 고백을 하도록 사람들을 초대하고 가르치고 자라게 합니다. 교회 공동체 중심의 목회는 신앙과 삶의 공동체성을 강조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 구원받지만, 그 구원이 개인주의에 머물지 않고 공동체 신앙으로 자라고 열매 맺어야 합니다. 함께 믿음을 키우고 구원받은 삶을 나누며 누릴 때, 온 피조물이 진정한 구원의 잔치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중심의 목회는 회중들과 함께하는 목회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공동체입니다. 각기 받은 은사에 따라 직분은 다를지라도, 모든 회중은 교회를 돌보고 가꿀 임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목회는 회중들의 다양한 은사를 엮어 함께 교회를 가꾸며 세상을 섬길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온전히 드러나는 목회가 됩니다(고전12:1~7).

셋째, 교역 중심의 목회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교인을 돌보는 일(목회)과, 세상을 섬기는 일(선교)과, 교인을 가르치는 일(교육)이 서로 분리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목회는 좁은 의미에서 교회 안의 양 떼를 돌보는 것만 아니라, 인간의 모든 삶을 포괄합니다. 교역으로서의 목회가 이뤄질 때 회중들의 참여 폭이 넓어지고, 세상 한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가꾸는 목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말씀 중심(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목회, 교회 공동체 중심의 목회, 교역 중심의 목회가 될 때 목회는 그 본래 자리와 직능을 간직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에게서 위임받은 정체성을 굳게 견지하면서도 여러 세속의 방편들을 주님의 교회를 위해 바르게 쓸 수 있습니다. 또한 변화된 삶의 구조와 가치에 창조적으로 대응하여 세상을 새롭게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는 창조적인 목회를 할 수 있습니다.

## 2) 선교에 대하여

마가복음 16:19~20, 요한복음 1:1~5

우리는 1960년대 이후, 세계교회의 에큐메니컬 정신에 따라 '하나님의 선교'(Missio Dei)를 우리의 선교신학으로 선택했습니다. 당시 세계적으로는 냉전체제가 가속적으로 구축되었고, 라틴 아메리카의 군부독재와 경제적 예측이 심화되었으며, 아프리카, 아시아는 구조적 빈곤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군부의 쿠데타와 개발독재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세계교회의 에큐메니컬 운동은 사회발전과 경제문제, 국제문제에서의 정의와 평화, 세속화와 책임사회론 등을 중심으로 전개되었습니다.

이 시기에 우리는 급속한 근대화 과정에서 파생하는 도시화와 농촌의 붕괴에 대응하기 위해, '하나님의 선교' 신학을 근거로, 개발독재가 추진한 근대화의 그늘에서 고난받는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을 중심으로 농촌개발과 도시산업선교를 전개했습니다.

1970년대, 유신정권의 장기 집권 기획도 양심적 지식인들이 박해받고, 민중이 탄압받는 상황에서 우리는 인권과 민주화를 위한 투쟁에 참여했습니다. 수많은 청년 학생, 교역자들이 구속되었고, 지식인들은 해직당했습니다. 민중과 더불어 고난받으며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하며 함께 희망을 나누는 경험으로부터 '민중신학'이 탄생했습니다. 민중신학은 세계

교회의 주목을 받았으며, 하나님의 선교신학이 한국에서 독특하게 신학화된 최초의 한국신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80년대에 하나님의 선교는 '정의·평화·사랑·창조 세계의 보전'(JPLIC) 신학에 의해 창조적으로 계승되었습니다. 동서 냉전체제가 해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분단상황에서 첨예한 군사적 대결 관계에 있던 한반도, 경제적 급성장이 수반한 빈부의 양극화와 더욱 심각해진 생태계의 위기 상황에서 '정의·평화·사랑·창조 세계의 보전' 신학은 우리의 새로운 선교 신학이 되었습니다.

1990년대 들어와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동서 이념대결과 핵전쟁의 위협, 흑백논리와 자유의 억압, 종속적 발전과 경제적 양극화 속에서 세계를 지배해왔던 냉전체제가 해체되었지만, 세계는 이른바 '신세계 질서' 안으로 재편되었습니다. '세계무역기구'(WTO)의 출범과 함께 시작된 세계 시장의 재편은 가난한 사람들의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노동력의 세계적 이동은 인종과 문화, 종교 간의 갈등과 충돌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세계는 물론 한 나라 안에서도 가난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 사이의 격차가 양극화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경제체제로서만이 아니라 사람의 의식까지도 시장 논리에 예속시키고 있습니다. 파괴되는 생태계는 지구 종말의 가능성을 더 구체화 시키고 있습니다. 냉전체제가 해체되었지만, 테러와 전쟁, 민족 간의 분쟁과 지역갈등, 종교적 갈등은 조금도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계의 급변하는 상황에 부응하는 새로운 선교 신학의 모티브를 '희년'에서 찾았습니다. 희년법(레25장)은 공동체 윤리, 곧 노예의 해방과 귀향, 토지 소유권의 회복과 빛의 탕감, 땅의 휴경 등 불의한 사회적 구조 때문에 희생당한 사람들의 법적 권리와 기본적 생존권을 회복하는 것은 물론 자연에 대한 생태학적 고려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변화된 시대에 적합한 선교 신학적 가능성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희년은 역사의 주기적 개혁과 새로운 시작을 가능하게 하는 실천을 담지하고 있고, 이 실천의 주체는 신앙공동체입니다. 신앙공동체로서의 교회는 희년 선포의 주체이면서 동시에 희년 실천의 주체여야 합니다. 선포와 실천이 일치할 때, 교회는 진정한 의미에서 희년 공동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선교는 교회의 증언과 봉사와 교제의 정체성과 신실성을 회복하는 방향에서 모색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2003년 새 역사 50년이 되는 희년을 맞이합니다. 우리는 신학적인 면에서나 사회 참여적인 면에서 한국교회의 전위대였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전통과 정체성을 지키면서 급변하는 시대적 도전을 지혜롭게 극복하려고 합니다.

### 3) 교육에 대하여

이사야 61:10~11, 요한복음 1:16~18, 에베소서 4:11~13

우리는 60~70년대에는 '하나님의 선교'를, 80~90년대에는 '정의·평화·사랑·창조 세계 보전'을 교회 교육의 내용으로 삼고 정책으로 세웠습니다. 이런 우리의 교회교육 정책은 그리스도교의 연합, 이 땅에서의 예언자적 사명과 섬김, 인권 및 민주화 실천, 평화 통일운동, 인간화로서의 하나님 나라 추구와 신앙의 토착화 등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토대 위에서 1995년에 한국교회가 민족의 희년을 선언하고부터는 교회교육에서도 적극적으로 희년신학을 통해 평화와 통일, 그리고 자연과 생태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교회교육은 이 땅에서 정의로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데 큰 공헌을 했습니다. 그러나 주로 세상을 위한 예언자적인 사명과 흠어지는 교회의 사명만을 강조하고 사회경제적인 면에만 치우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앙의 기초가 되는 기도와 말씀 묵상을 통한 영성 훈련이나 성령을 통한 신령한 힘을 체험하는 면이 부족했습니다. 주님의 몸이신 교회를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으며, 기초신앙을 다지고, 그 신앙을 활기차게 하고 자라게 하는 양육적인 교육도 소홀히 한 경향이 있었습니다. 또한 상처받거나 방황하는 심령을 어루만지는 치유교육의 중요성도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반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공동체를 해방하는 교육과 함께 그리스도인 개개인의 영성을 기르는 교육을, 역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는 교육과 더불어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교육, 예언자로서 역사를 변혁하는 교육과 함께 제사장으로서 상한 심령을 어루만지고 낮게 하는 치유교육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생명과 복을 누리게 하는 지혜 교육을 창조적으로 통합해 가려고 합니다.

그리스도교의 교육은 '은총 교육'입니다. 우리의 교육은 창조주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을 받는 데서 출발합니다. 이런 은총의 경험은 예배 안에서 일어납니다. 말씀 선포와 성례전을 통해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동시에 말씀을 듣고 새기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의 기도로써 하나님께 응답하는 과정을 통해 신앙교육은 이루어집니다.

이런 은총신앙을 꾀함으로써 교회교육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하게 합니다. 아울러 세상에서 복음의 안목과 가치를 가지고 책임 있게 살아가는 신앙인을 육성합니다. 나아가 교회교육은 은총의 힘을 바탕으로 세상을 섬기러 오신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말씀을 가르치고 공부하면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고 세계를 변화시키는 제자를 양육합니다.

다음으로 교회교육은 진리를 구체적으로 깨우쳐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성령에 응답하여, 공동체의 친교를 이루고, 우리의 삶을 품고 있는 생태계를 보전하여 하나님 안에서 만물과 친교를 이루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서로 도우며 함께 살아가는 청지기'의 삶을 훈련함으로써 생명의 영성과 문화를 싹틔우려고 합니다. 마침내는 교회교육이 하나님 나라의 희년교육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며, 창조 세계 안에서, 이웃과 더불어 사는 삶'을 이루려고 합니다. 이로써 은총교육은 완성됩니다.

은총교육의 신학 토대는 세계를 지으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창조와 출애굽과 예언 전승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상을 이끌어 가시고 해방하시는 구원을 담은 '하나님 말씀의 신학', 교회의 일치와 평화롭게 살아갈 세계를 실현하는 데 중점을 두는 '외쿠메네 신학', 하나님께서 배달겨레에게 주신 영성에 뿌리내리는 '한국적 토착신학', 피조물 하나하나의 고유성과 개성과 전체의 다양성을 함께 보전하고, 만물의 화해와 상생을 추구하는 '생명신학' 등입니다.

은총교육의 교육학 토대는 전인(全人) 구원을 추구하는 '인간해방 교육론'과 생명공동체 형성을 위한 '문제지향 교수론'입니다. 또한 은총교육은 신앙교육을 좁은 울타리에 두는 학교 형태의 '주일학교' 구조와 어린이·청소년 중심의 교육을 넘어 교회 전체의 삶과 구조를 은총 교육의 환경과 기회로 활용합니다. 그리고 목회와 교육의 이분화를 넘어서서 '교육목

회'를 이루려고 합니다. 이럴 때 은총교육은 세계 개혁교회의 교육적 접근인 성경 토대, 역사 고려, 에큐메니컬 노선, 사회 참여, 공동체의 양육 등을 바탕으로 하고, 한 면만을 추구하며 극단으로 향하는 원리주의와 배타주의, 영지주의와 신비주의 그리고 인본주의 방법을 지양합니다.

은총교육을 위한 교육목회는 선포와 경청(케리그마), 예배와 기도(레이투르기아), 공부와 훈련(디다케), 친교와 생태(코이노니아), 나눔과 섬김(다아코니아)이 서로 교차하며 순환합니다. 한편 이런 교육을 하기 위해 은총교육은 실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이 세계 안에 허락하신 모든 선하면서도 복음을 안내하는데 적합한 인적, 물질, 문화적 요소들을 풍요롭게 활용합니다.

#### 4) 생활에 대하여

마가복음 10:43~45, 요한복음 13:12~15

현대 자본주의와 산업사회의 가치관과 제도 때문에 현대인은 여러 차원에서 뜻있는 자기 체험을 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을 살아있는 영(창2:7)으로 느끼지 못했고, 물질이나 상품처럼 경험했습니다. 규격에 맞추어 물품을 대량 생산하는 일을 하면서 자신을 인격이 아닌 기계의 부품처럼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한동안 이 세계는 사회주의와 자유주의를 내세우는 자본주의 진영으로 나뉘어서, 사회주의 세계는 집단 속에 개인의 개성과 자유를 희생시켰고, 자유주의 세계는 개인의 자유를 앞세워 공동체의 정의를 희생시켰습니다. 그러나 어느 경우도 참 인간에 대한 가치와 의미를 줄 수 없었습니다.

이성과 과학이 어느 때 보다 발달한 현대에 들어와서 세계는 두 번씩이나 세계대전을 일으켜 같은 동족을 학살하는 경험을 했습니다. 이 비극을 통해서 인류는 자신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되었고, 어둡고 불안한 자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20세기 중반부터 세계의 그리스도교는 이 세상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을 아픔과 탄식으로 몰아넣는 악하고 불의한 정치와 경제 질서에 눈을 뜨고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리스도교는 세속, 정치, 역사, 공동체의 정의에 관심을 크게 갖게 된 반면, 현대인들과 그리스도교인들이 묻는 영원한 삶이나 영혼, 내적인 삶의 가치와 의미 같은 문제들에 대해서는 개인적이고, 실존적이고, 탈 세상적인 것으로 여기는 경향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이런 여러 이유로 사람들은 자기 자신과 삶에 대해서 의미와 가치를 잃고 방황하게 되었습니다. 삶을 비극과 허무로 느끼게 되었고, 이런 공허를 채우기 위해 더욱 탐욕스럽게 욕망과 물질과 힘을 좇음으로써 인간답지 못한 삶의 구조를 만들어 왔습니다.

이와 같은 현대의 삶 복판에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짧은 시간에 서구의 현대화와 산업화를 이루었습니다. 산업화로 인한 인간성 상실, 자본주의가 가져온 경제 불평등, 남북 분단, 군사 독재와 이로 인한 인권탄압과 같은 현실 때문에 한국의 일부 교회들은 역사와 공동체의 정의에 신앙과 삶의 초점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욕구와 내적인 삶의 의미를 얻고자 하는 관심을 크게 기울이지 않아서,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통해 심령의 기쁨을 제대로 주지 못했습니다. 반대로 많은 교회들은 개인의 복과 영적인 것만을 추구하는 신앙

과 삶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생명이란 처음부터 다른 생명과 얽혀 있어서, 개인과 복 중심의 영적 체험만 가지고는 참된 자기와 삶의 의미를 경험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삼천 년 기를 맞으며 인류는 영성에 대한 가치를 추구하는 시대에 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동안 왜곡되어 있거나 잊혀졌던 참 자기에 대해 관심을 다시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교는 인간의 실존을 성서와 그리스도 신앙을 통해 새로이 묻고, 그리스도인들 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심령이 충만한 생활을 하는 영성의 길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물음과 지침이 관념에 머물지 않도록 구체적인 생활로 제시해야 합니다. 성서의 안내를 받으며, 하나님과 세계와 이웃과의 관계 안에서, 소중하고 가치 있는 자신을 발견하면서 자신의 삶을 궁극적인 생명을 위해 헌신하게 함으로써 보람과 기쁨을 경험하게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이런 영성적인 인간 경험을 통해서만 오늘날 생명과학 기술로 자신을 마구 조작할 수 있는 생물체로 여기는 또 다른 유물론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희년 문서에 ‘그리스도교인의 생활’이란 항목을 두고, 은총 생활, 생명 생활, 섬김 생활, 희년(하나님 나라) 생활로 나누어 구체적인 삶의 지침들을 주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그리스도교인의 삶의 중점을 ‘섬김 생활’에 두려고 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기까지 사셨던 삶의 내용은 섬김이요, 이 섬김의 삶을 통해 생명이 사는 신비가 일어나며(요12:24),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예비하신 나라에 초대받기 때문입니다(마25:31~40). 또 ‘섬김 생활’을 바탕으로 할 때, 영적이고, 실존적인 삶의 물음이 개인적이고 내면적인 차원에 머물지 않고 공동체와 세계와 관계를 맺게 되기 때문입니다.

## 2. 지침

### 1) 목회 지침

#### (1) 은총 목회 지침

목회의 출발은 사랑으로 우리를 내시고, 복을 주시고, 돌보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동시에 목회는 하나님의 은총을 전달하고 경험하게 하는 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목회는 하나님의 은총을 교회 공동체의 삶에 전달하는 수단입니다. 따라서 은총 목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방법으로 해야 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누리며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예배와 성례전 안에서 드러나고 말씀을 통해 선포됩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과 생명을 주십니다. 따라서 은총 목회는 예배와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합니다. 목회를 통해 교회가 하나님의 은총 앞에 서게 될 때 바르게 자라고 일하게 됩니다.

#### ① 예배 목회

예배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열리는 구원의 잔치입니다. 예배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죄를 용서받고, 새로운 존재가 됩니다. 예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듣고, 능력을 받

고, 세상을 향해 보냄 받습니다. 이 예배야말로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제일 좋은 자리입니다. 동시에 목회의 자리입니다.

예배는 주일 예배(성례전 포함)와 매일 기도(아침기도, 한낮기도, 저녁기도), 그리고 상황예식(믿음예식, 희망예식, 사랑예식, 축복예식, 목양예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일예배는 부활절 축제의 재현입니다. 전 공동체가 말씀을 듣고 성만찬을 나누는 주일예배를 통해 함께 하나님의 은총을 받습니다. 매일 기도는 주일예배 이외의 모든 신앙모임과 그리스도인들의 일상 생활에서 드러져야 합니다. 은총목회는 매일 기도를 통해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영성을 훈련하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신앙의 순례를 하게 합니다. 여러 상황예식은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서 새기고 결단하게 합니다. 상황예식은 우리들의 믿음을 세우고, 삶을 성별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선교의 기회가 되게 합니다.

## ② 말씀 목회

말씀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지으신 창조의 능력이며(창1:3), 구체적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자신이십니다(요1:1~14). 따라서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구원 은총이 담겨있을 뿐더러, 은총을 전달하는 건강한 방법도 제시되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중에, 또 우리들이 생활하는 중에, 성령은 말씀을 통하여 일하십니다(고전 2:12). 말씀을 통해 우리는 기쁜 소식을 듣습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는 죄의 용서를 선언 받고 의롭다는 인정을 받습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는 삶의 힘을 얻고 주님을 섬기는 사명을 받습니다(눅24:36~49). 또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통해 세상을 향해 선포됩니다. 말씀은 아름다운 교회의 삶이나 선한 행실로, 또 세상을 향한 교회의 예언으로도 선포됩니다(마5:13~16).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는 늘 성령께서 함께하셔서, 말씀을 살아 움직이게 하시고, 새로운 역사를 일으킵니다(롬15:16~19).

목회자와 성도, 그리고 교회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롬3:2). 부족한 우리가 말씀을 맡은 것 자체가 은총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과 영원한 생명에 안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따라서 은총목회는 그 무엇보다도 교회 공동체가 늘 말씀 가운데 살아가도록 합니다.

## ③ 용서와 사랑 목회

우리들의 구원은 하나님의 용서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사랑이 한이 없는 분이십니다(욘4:1).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 누구나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요3:16).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 담당케 하시고 우리를 용서해주셨습니다. 용서를 가르쳐 주시고 실천하신 예수님은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요13:34)하고 분부하셨습니다. 따라서 은총목회는 하나님께 용서받은 것을 감사하며, 교회 안에서, 세상 안에서, 서로의 허물과 죄, 그리고 우리가 불완전

하기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갈등과 장벽을 사랑으로 용서하고 화해하게 합니다.

교회는 은혜의 공동체입니다. 용서와 사랑으로 은혜받은 삶의 표현은 감사와 찬양입니다. 감사와 찬양이 넘칠 때, 우리 가운데 생명이 넘칩니다. 이 용서와 사랑을 경험할 때, 죄와 미움으로 상해 있던 우리 몸과 심령이 회복되고, 진정한 성도의 교제가 일어나 교회 공동체도 건강하게 됩니다.

## (2) 생명 목회 지침

예수님은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넘치게 하려고 왔다”(요10:10)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의 생명을 위해 예수님은 이 세상을 떠나실 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요15:26~16:15). 교회는 주님의 영이신 성령이 인도해 가십니다.

성령은 생명의 영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은 경험할 수 있는 것도, 말씀을 듣고 깨달아 믿음을 갖는 것도, 성령의 활동으로 된 일입니다. 또한 생명의 영이신 성령의 능력은 죽은 심령들과 자연 세계 모든 것을 새롭게 바꾸어 새 생명을 주십니다. 그러기에 생명 목회는 성령께서 하시는 목회입니다.

### ① 온 생애를 지원하는 목회

교회는 신앙을 양육하는 공동체입니다. 생명목회는 한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전 생애를 그리스도 안에서 돌보고 신앙적으로 그 삶을 지도해야 합니다. 사람의 일생은 하나님께서 성장을 위해 두신 일정한 삶의 주기나 발달단계가 있고, 이때 꼭 필요한 생의 과제가 있습니다. 생명 목회는 이런 생의 과제들을 잘 이루어서 전 생애를 통해 하나님을 향해 자라도록 신앙으로 돕고 지원합니다.

성령은 우리를 도우시는 영입니다(요16:7). 우리가 낙심하고 지칠 때도 도우시지만, 우리들의 삶이 자라도록 도우십니다. 성령은 신앙의 성장에 필요한 영적인 양분과 은사들을 지원해주십니다.

이런 생명목회를 위해 목회 구조도 개선해야 합니다. 그동안 어린이는 교육의 대상이었고, 노인은 돌봄의 대상이었으며, 주로 성인만이 목회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전 연령층의 교인이 그 연령에 맞는 교역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 ② 치유와 살림목회

예수께서는 두루 다니시며 병든 사람을 고쳐주시고 죽은 사람을 살리셨습니다(마 4:23-25). 치유와 살림은 예수님의 목회 중심이었습니다. 교회 안에는 몸과 마음이 아픈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죄로 말미암아 심령이 병들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 공동체가 병들 때도 있습니다(제2:4~5). 나아가 이 세계가 어둠과 죽음 가운데 있습니다. 따라서 생명목회는 성령의 능력을 통한 치유와 살림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우리와 이 세계에 생명을 이루어줍니다. 진흙 같은 우리를 거룩한 생명이 되게 합니다(창2:7). 생기 없는 생명에게 생기를 가져다줍니다(시104:30). 죽은 공동체를 살아가게 합니다(겔37:1~14).

진정한 치유는 우리가 거듭날 때 이루어집니다. 이 거듭남이야말로 성령을 통해서 일어나는 신앙의 역사입니다(요3:5). 성령은 또한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또 우리 사이에 진정한 교제를 가져옵니다. 이 성령의 친교에 참여할 때 놀라운 치유와 살림의 역사가 일어납니다(행2:43~47, 5:12~16).

### ③ 안녕과 축복의 목회

생명목회는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내신 그 아름다운 모습을 간직하고 유지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온갖 생명을 지으시고 그때마다 보기에 좋다고 감탄하셨습니다. 지으신 생명들에게 번성하라는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주님은 생명들이 사는 땅에 오셔서 삶의 양분을 가득 마련해주십니다. 이로써 이 세상에는 기쁨이 흐르고 즐거움이 메아리칩니다(시65:5~13). 또한 모든 생명은 주님께서 정해주신 질서를 따라 살아감으로써 평화를 누리며 살아갑니다(시 104:3~6).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에게 허락하신 이 같은 안녕과 복을 먼저 자기 백성에게 기꺼이 내려주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들의 고난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며 안녕과 복을 빌어 주십니다(롬8:26~28).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요 상속자가 되게 하십니다(롬8:12~17). 이로써 우리는 하늘의 평화를 누리며 이 땅에서 온갖 복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안녕과 복은 하나님께서 풍성히 누리도록 우리에게 은총의 선물로 주신 것이며, 우리 모두와 온 피조물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생명 목회는 언제나 모든 생명의 안녕과 복을 하나님께 기원하며, 우리로 하여금, 성령 안에서, 더불어 살아가게 합니다.

### (3) 섬김 목회 지침

성령을 통해서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목회는 섬김 목회로 이어집니다. 섬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분부하신 삶입니다(요13:14~15). 이 섬김의 목회를 통해 우리 가운데 생명이 옵니다.

이 섬김 목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목회입니다. 따라서 사랑과 희생을 통한 목회입니다. 또한 이 섬김을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바치고 활용합니다.

섬김 목회는 그리스도를 본받고 따르는 것이기에 겸손과 순종이 그 터전입니다. 그러기에 섬김 목회는 우리들의 영성이 자라나게 합니다. 또 우리들의 섬김 활동과 섬김을 위한 제도나 운영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 그리고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이 때 목회가 인간의 업적을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섬김이 될 수 있습니다.

### ① 주님을 섬기는 목회

섬김 목회의 첫째 목표는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곧 나를 섬기는 것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마25:45).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그것을 주시는 분은 같은 성령이십니다. 섬기는 일은 여러 가지지만, 섬김을 받으시는 분은 같은 주님이십니다”(고전12:4~5)라는 말씀처럼 섬김을 가능하게 하는 분은 성령이시

며, 섬김의 대상은 주님입니다.

섬김 목회가, 성령을 통해서, 주님을 위해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섬김이 자기 업적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또한 섬김 목회가 주님을 위한 것이 될 때, 우리들의 섬김이 자선 활동이나 세상의 모든 선한 활동과는 구분되는 구원을 위한 목회가 될 수 있습니다.

목회란 주님을 섬기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벧전 4:11)으로 해야 하며,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로 자기를 낮추는 겸손으로 해야 합니다(벧전 5:6).

## ② 목양 목회

하나님께서 친히 어린 백성들의 목자가 되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흠어진 양 떼들을 모으고 좋은 곳으로 인도하십니다(겔34:11~14).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서 이 땅에 오셔서 양 떼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시고(요10:7~10), 사도들에게 내 양 떼를 먹이라고 거듭 부탁하셨습니다(요21:15~17). 이처럼 목회는 하나님의 백성인 양 떼를 돌보는 목양입니다.

목양으로서의 목회는 돌보는 목회입니다. 그러기에 목양 목회는 공동체 안에서 약한 백성에게 큰 관심을 갖습니다. 길 잃은 양은 찾아오고, 상한 양은 싸매어 주며, 약한 양은 튼튼하게 자라도록 도와줍니다(겔34:16). 목양 목회는 양 무리를 생명으로 인도합니다. 양 무리로 하여금 참 목자의 음성을 듣게 하고(요 10:16), 목자의 인도와 보호를 받으며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로 가서 생기를 얻게 합니다(시23:1~2). 목양 목회는 양 무리에게 구원의 꼴을 먹입니다(벧전5:2). 구원의 꼴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생명의 양식입니다. 이처럼 약한 백성을 돌보고, 전체 양을 생명으로 인도하고, 구원의 꼴을 먹이는 목양을 통해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게 자라고 유지됩니다.

## ③ 자산과 은사를 활용하는 목회

섬김 목회는 우리들의 구체적인 행동과 실천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누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행함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어떤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그날 먹을 것조차 없는데... 평안히 가서, 몸을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먹으십시오 하면서, 말만 하고 몸에 필요한 것들을 주지 않는다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약2:14~17) 하는 말씀처럼 섬김 목회는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섬김 목회는 우리들의 믿음을 행실로써 증거 하는 목회입니다.

섬김 목회는 우리들의 모든 자산을 요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으로 하나님께 바쳐야 합니다. 하나님께 바치는 봉헌이야말로 우리의 재화를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쌓는 길입니다(마6:16~1).

섬김 목회는 우리들의 은사를 활용합니다. 성령께서는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모든 사람에게 각기 다른 은사를 선물로 나누어주셨습니다(고전12:7~11). 사도들은 이 은사들을 활용하여 교회를 돌보고 섬기도록 일꾼을 뽑았습니다(행6:1~7). 이 섬김 목회를 통해 교회가 진정한 한 몸이 됩니다(고전12:31). 사도만이 아니라 회중 모두가 목회의 참여자가 되고(벧전 4:7~10), 교회가 건강하게 자라납니다(행6:7).

#### (4) 회년 목회 지침

회년 목회는 하나님 나라의 차원을 갖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여라”(막16:15)하고 분부하셨습니다.

교회는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이끌기 위해 하나님께서 손수 세우신 기관입니다. 따라서 교회의 목회는 이 땅에서 회년의 세상을 꿈꾸고 이루는 목회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 안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사회 정치·경제적인 모든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야 합니다. 회년 목회는 빛은 탕감하고, 묵인 자는 풀어주며, 기업은 되 물려 주고, 자연은 쉬게 하여 온전한 구원과 평화를 오늘 이 세계 안에 하나님의 선물로 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목회가 온 생명 세계를 하나님 앞으로 초대해서 돌보고 자라게 하는 열린 교역이 되어야 합니다. 회년 목회는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 안에서 화해를 이루어 평화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는 목회입니다.

이런 회년 목회를 통해서 온 생명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시 148:1~14). 회년 목회는 이 세계에서 새로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새 창조의 손길입니다(사 43:18~21).

##### ① 세상을 향한 교역으로서의 목회

회년 목회는 교회의 전통적인 기능을 세상을 향해 넓혀줍니다. 교회의 선포(케리그마)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일입니다. 교회는 이 선포를 세상을 향한 희망과 구원의 소식으로 또는 예언으로 넓혀서 선포합니다.

교회의 친교(코이노니아)는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거룩한 사귄입니다. 교회는 이 친교를 하나님 안에서 만물의 친교로 넓혀줍니다.

교회의 교육(디다케)은 교인들을 신앙적으로 지도하고 권면하는 일입니다. 교회는 이 교육의 기능을 세상으로 넓혀서, 하나님의 생명 말씀에 비추어서 이 세계를 건강하고 정의롭게 할 수 있는 가치관과 세계관을 제시합니다.

교회의 봉사(디아코니아)는 교회 안에서 서로를 섬기고 주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교회는 이 봉사를 온 세상을 치유하고 살리는 선교로 넓혀줍니다.

##### ② 생태 세계와 문화 목회

하나님이 내신 모든 생명 세계가 목회의 대상이며 영역입니다. 그동안 목회는 교회 안에서 교인들을 대상으로만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창조신앙의 새로운 발견을 통해서 온 생명과 세상이 하나님의 창조와 은총 가운데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의 죄 때문이지만, 모든 피조물이 함께 신음하며 구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롬8:18~25). 하나님의 손길은 이 모든 피조물에게 미칩니다. 따라서 우리들의 목회도 그 지평을 온 생명을 향해 넓혀야 합니다. 회년 목회는 생태 세계를 돌보고 회복시켜서, 자연이 하나님이 내신 원래의 질서대로 움직이도록 일해야 합니다(창8:22). 아울러 목회 자체가 생태 지향적인 내용과 구조를 가져야 합니다.

희년 목회는 우리를 둘러싼 환경인 문화도 새롭게 일구고 가꾸어야 합니다. 생명 조작 기술, 맘몬 숭배, 지배와 독점, 끝없는 소유 추구, 무절제한 소비 등의 물질 문화는 이 세계에 죽음을 가져옵니다. 예언자들은 우상을 섬기고, 쾌락을 좇고, 폭력을 행사하는 문화를 꾸짖었습니다. 예수님도 헛된 표징과 기적을 구하는 시대 풍조를 경계하셨습니다(막13:21~23). 이 문화를 하나님의 생명과 복음으로 바르게 하고 새롭게 할 때 그 안에 있는 우리와 교회가 건강하게 됩니다.

### ③ 진리와 복음을 위한 목회

희년 목회의 목표는 세상을 향해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가꾸고 넓히는 목회입니다. 이 희년 목회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나는 진리를 증언하기 위하여 태어났으며, 진리를 증언하기 위하여 세상에 왔소.”(요18:36~37)하는 예수님의 말씀과 충돌하지 않습니다. 희년 목회는 온 피조물의 평화와 생명을 위해 기꺼이 정의로운 정치나 경제를 이루려고 투쟁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희년 목회의 최종적인 목적은 아닙니다.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진리와 복음을 드러내고 실천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진리만이 이 세계를 자유롭게 하고(요8:33), 복음만이 이 세상을 구원하고 해방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교회가 세상을 향해 하는 모든 교역은 진리와 복음을 위한 것입니다.

진리와 복음을 위한 목회는 하나님을 향한 영성을 그 바탕으로 합니다. 세상을 위한 교역에 참여하는 모든 일꾼은 자기를 비우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영성 수련을 통해, 스스로 진리와 복음 앞에 무릎 꿇어야 합니다. 또한 세상을 위한 모든 교회의 활동이나 계획이나 구조도 진리와 복음에 맞는 영성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진리와 복음으로 희년을 이루는 교역을 이 세상에서 펼쳐 갈 때 온 세계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며 성령이 거하시는 처소로 자라나게 됩니다(엡2:21~22).

## 2) 선교지침

### (1) 은총선교 지침

선교는 은총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스스로 인간의 모습을 취하고 세상의 낮은 곳으로 오신 사건 자체가 은총의 사건이기 때문입니다(빌2:6~11). 그러므로 선교는 세상을 사랑하시어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에 대한 증언이어야 합니다(요3:16). 조건 없는 사랑의 실천, 대가를 바라지 않는 봉사, 우리는 씨를 뿌리지만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라는 믿음이 은총으로서의 선교에 임하는 태도입니다. 값없이 받았으니 값없이 주는 태도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은총으로서의 선교는 우리의 조건이나 능력, 의지와 관계 없습니다. 선교는 선택이 아니라 필연인 것입니다.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이미 교회가 아닙니다.

### ① 성숙한 성장을 지향하는 선교

선교는 교회의 성장과 개혁에 기여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한국교회의 선교는 교회의 성숙한 성장과 개혁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교회의 위기를 심화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선교가 교회의 일치와 증언의 신실성을 뒷받침하기보다는 교회를 분열시키고 증언을 불

신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물량주의에 근거한 공격적인 교인쟁탈전, 교파 간의 분열만이 아니라, 부자 교회와 가난한 교회로 교회를 양극화시키는 현실이 그것을 반영합니다. 우리는 교인의 수평 이동이나 시장 논리에 부응하지 않고, 교단의 역사와 정체성에 걸맞은 개혁을 통한 교회 설립과 성장의 길을 가야 합니다.

현재 전국 232개 시, 군 지역에 기장교회가 없는 지역이 약 42개에 이릅니다. 기장교회 혹은 기장과 관계된 사회복지기관이나 여타의 선교 기관이 없는 지역에 최소한 1개의 교회 혹은 선교 기관이 설립되어야 합니다. 새로운 교회 설립을 위한 기획과 실현을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협의체가 노회와 총회 사이에 조직되어 지역선정, 과제발굴, 선택과 집중의 기획성과 효율성을 높여야 합니다.

## ② 타 종교에 대하여 열린 선교

21세기에 인류를 위협하는 가장 심각한 도전의 하나는 종교 간의 갈등이 폭력적으로 심화되는 것입니다. 이슬람과 유대교(이스라엘, 팔레스틴), 이슬람과 그리스도교(유교, 인도네시아 등), 불교와 그리스도교(한국), 개신교 교파 간의 갈등은 지역 간, 인종 간 갈등의 배경이 되고 있고, 갈등 상황은 갈수록 위험수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특히 다종교사회 안에서 그리스도교가 소수 종교인 지역에서의 갈등은 더욱 심화될 전망입니다. 더욱이 정치적 갈등과 종교적 갈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지역에서는 폭력적인 억압과 대응 폭력으로 수많은 사람의 생명이 희생당하고 있습니다.

선교가 강제적이고 억압적인 개종, 전통문화와의 단절을 강요하는 한, 이런 갈등은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은총으로서의 선교는 비록 신앙을 달리하는 사람일지라도 모두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 아래 있다고 고백합니다. 은총으로서의 선교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신다(딤후2:4~6)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대속물로 내주셨다'(딤후2:6)라고 선포합니다. 은총으로서의 선교는 다른 종교와 신앙, 신념을 가진 사람들과 갈등이 아니라, '함께 사는 삶'을 지향합니다. 은총으로서의 선교는 폭력과 강요가 아니라 대화와 증언으로서 선교하기를 원합니다.

## ③ 참여로서의 선교

우리는 밖으로는 정치적 민주주의와 인권의 신장을 위해 투쟁해 왔을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의 참여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여전히 비민주적인 의식과 조직 형태가 지배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기 위하여 교회 안에서 진정한 참여민주주의를 실천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 어떤 형태의 차별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골3:10~11). 교회 안에서의 다양한 은사는 오직 섬김을 위해 주어진 것이지, 다른 사람을 지배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직제의 권위는 교회의 질서를 지키고 전통을 계승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권위를 주신 것은 넘어뜨리려고 함이 아니라, 세우려고 함'(고후13:10)입니다.

교역자와 장로 사이, 장로와 집사 사이의 갈등 등 교회 안에서 직제와 권위를 중심으로 일어나는 대부분의 갈등은 은사를 오직 섬김을 위한 것으로 이해할 때, 값없이 주신 은총으로 생각할 때에 극복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단은 여성과 청년의 참여를 확대해 왔고 제도적으로도 많은 부분에서 참여적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차세대 지도력의 향상을 위

해서 청년에 대한 관심과 배려는 더욱 시급합니다. 특히 이들이 지도력을 개발하고 참여민주적인 훈련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 ④ 하나님 나라를 위한 연대로서의 선교

우리는 여러 차례의 정치개혁 운동과 사회운동 차원에서 시민운동단체들과 전국적, 혹은 지역적 규모로 사안별로 연대를 해왔습니다. 각자의 전문성을 지니고 조직되어 운동하는 시민운동단체들에 교회는 전문성을 갖춘 신도들의 참여를 독려하면서 개교회, 노회, 총회 차원에서 시민운동과 연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특히 신도들의 전문 지도력을 조직해냄으로써 교단의 대사회적 발언이 전문성을 얻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최근 국내외에서 조직된 시민사회단체들의 놀랄만한 활동과 비약적인 발전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도 이미 세계교회와 맺고 있는 자매 관계, 혹은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국내외의 시민사회단체들(NGOs)과 적극적으로 연대해야 합니다. 의식개혁과 제도개혁, 나아가 세계의 불의한 구조를 개혁하는 데 가장 필요한 것은 국제적 연대입니다. 정보의 공유와 네트워크의 구축, 국제적 연대활동 등은 더 강화되어야 합니다.

### (2) 생명선교 지침

생명선교는 오늘날 총체적으로 위협받고 파괴되는 생명의 현실을 반영합니다. 가난한 나라의 민중, 차별과 폭력에 노출된 여성, 전쟁과 테러, 생태계의 파괴와 급증하는 자연재해, 소비문화, 기술과학과 통신 혁명의 비인간성, 유전자 조작 식품과 생명공학의 불투명한 미래, 광우병 등 오늘 인류가 직면한 문제는 생명의 본질인 관계성의 파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인간과 하나님,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 사이의 관계가 탐욕과 시장 경제적 사고에 의해 근본적으로 파괴되었기 때문입니다.

#### ① 생명선교는 살림 문화선교

오늘 생명을 파괴하는 죽임의 문화를 극복하고, 풍성하고 충만한 생명의 문화를 만들어 갈 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문제되는 것은 죽임의 문화입니다. 죽임은 광범위하게 일상화되었고, 조직적으로 추구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빠지기 쉬운 냉소적 방임주의와 시한부 종말론 사이에서 생명선교는 책임적인 생명의 문화, 살림의 문화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고 말합니다(롬8:19).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입니까? 바울에 따르면, '육을 따라 살지 않고 영을 따라 사는 사람들'(롬 8:5), '희망으로 구원받은 사람들'(롬8:24),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사람들'(롬8:17)입니다. 육에 속한 생각, 곧 죽임이 아니라 영에 속한 생각, 곧 생명과 평화를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런 새로운 인간들의 신앙공동체가 피조물의 신음소리를 들을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들의 공동체 운동이 대안적 살림문화, 생명선교의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 ② 생명선교는 대화와 의사소통의 선교

생명선교는 생명을 파괴하는 모든 형태의 차별을 극복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 사람과 자연 사이, 성과 속의 차별이 구조화되는 것을 극복합니다.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 주십니다. 아들과 딸들, 젊은이와 늙은이, 남종과 여종들이 모두

성령을 받습니다(행2:17~18). 이들은 모두 새로운 생명의 영을 받아들이는 데서 평등합니다. 생명의 영이신 성령은 사회적 차별을 유지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지양합니다.

오늘 생명을 파괴하는 것은 일방통행적 소통구조입니다. 강대국이 약소국에, 부유한 나라가 가난한 나라에 일방적으로 예속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 나라 안에서, 심지어 가정 안에서도 쌍방향의 의사소통이 막힌 곳에는 독단과 지배, 복종과 무책임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막힌 담을 헐고 화해의 복음으로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생명선교는 새로운 소통구조를 가능하게 합니다.

### ③ 생명선교는 치유선교

병자의 치유는 오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중요한 증언이면서(막 1:32), 동시에 제자들의 사명이기도 합니다(마10:8).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나라 선포와 관련하여 병자들을 치유하십니다. 하나님이 그의 피조물에 대한 사랑의 능력을 나타내실 때, 악령들은 물러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초능력으로 병자들을 고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허약함을 맡아주시고, 우리의 병고를 짊어지심으로써' 우리의 병을 고치십니다. '그 몸 에 상처를 입음으로써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는 것입니다'(사53:5). 그러므로 우리는 고통 받는 사람들과 함께 고통을 나눔으로써 영원한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에 동참합니다.

### ④ 생명선교는 '거듭남'의 선교

니고데모와의 대화가 보여주듯이 '거듭남'은 새로운 삶의 시작을 의미합니다(요3:3~5). 생명이 폭력과 죽음의 위협을 받는 곳, 삶에의 용기가 상실되어 생명이 위축당하는 곳에서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우리의 생명을 거듭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의 영원한 생명은 지금 여기에서의 생명과 다른 생명이 아닙니다. 하느님의 영원한 생명은 지금 여기에서의 생명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거듭난 생명은 모든 삶과 생명의 영역을 포괄하지, 특별한 종교체험이나 영적 체험에 제한될 수 없습니다. 모든 삶은 은사 받은 삶이고, 은사의 약속 아래서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를 지배하는 죽임의 문화를 극복하고, 새로운 생명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거듭난 신앙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어 영원한 생명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의지하여, 우리 시대의 생명 선교공동체로 거듭나기를 기원합니다.

### (3) 섬김 선교지침

신약성서에서 '디아코니아'(섬김)는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들, 곤궁에 처한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의 제자로서 돕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다시 말해 복음의 능력 안에서 행해지는 이웃에 대한 자유로운 희생(갈5:1)으로서의 '디아코니아'는 그 원형을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사역에서 찾습니다: '나는 너희 가운데 시중드는 사람으로 와 있다'(눅22:27, 요 13:1~15),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주러 왔다'(마20:28)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삶은 제자들에게도 요청됩니다(요13:15).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로서 섬겨야 합니다(벧전 4:10). 굶주린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고, 헐벗은 사람에게 입을 것을 주고, 병든 자와 갇힌

자를 방문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섬기는 일과 같습니다(마25:35 이하).

그러므로 우리의 섬김은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을 따르고 순종하는 섬김일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섬겼기 때문에 우리도 섬기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의 능력이나 섬김받는 사람의 조건에 따라 이루어지는 섬김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 ①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는 선교

경제 세계화는 세계적으로만이 아니라 국내적으로도 부자와 가난한 자 사이의 양극화를 더 심화시킬 전망이다. 세계적으로 하루 생활비 1달러 미만 인구는 1998년에 12억1천4백만 명에 달했습니다. 세계의 초특급 부자 358명의 재산의 합은 인류의 거의 절반이 처분할 수 있는 소득 전체를 능가합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인구 1.6%의 고소득층이 국민 총소비의 25%를 차지하고, 상위 20% 계층 소득은 하위 20% 소득의 5~6배에 이릅니다. 연간 소득 1억 원 이상자는 98년에 비해 두 배나 늘어난 1만5천 명에 이릅니다. 반면 빈민의 수는 1999년에 1천만 명에 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셨습니다(눅 6:20). 지금 굶주리고, 슬피 우는 사람들이 배부르게 되고 옷게 될 것이기 때문에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는 것은 자선이 그리스도교의 덕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자선은 우리가 할 수 있으면 하고 할 수 없으면 안 해도 되는 선행이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과 소망 때문입니다. 나눔을 통한 정의의 실현이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 ② 사회의 약자와 소수자를 섬기는 복지선교

장애우, 노인, 어린이, 병자, 마약중독자, 재외동포, 외국인 노동자, 동성애자 등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관심도 섬김 선교의 본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가 여기 내 형제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마25:40, 45)라고 말씀하십니다. 섬김에는 조건이 없어야 합니다. 특히 '보잘것없는 사람들'에 대한 섬김은 더욱 그렇습니다. 이들이 사회적으로 차별받거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일에서부터 이들과 더불어 사는 관심과 배려의 마음이 넘치도록 의식을 바꾸는 일도 해야 합니다. 교회 건축에서도 장애우와 노인, 어린이를 배려해야 합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이나 사회적 소수자들이 거리낌 없이 함께 예배드리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회는 언제나 열려 있어야 합니다.

### ③ 청소년, 군 선교

실업과 경제난, 전통적인 가족구조의 해체 등으로 가출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입시 중심의 교육과 경쟁구조는 청소년들을 심리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압박하고 있습니다. 교육받은 청년들의 장기실업도 미래의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과 정보통신의 혁명적인 변화는 청소년들의 의식 구조도 급격하게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우리는 청소년들을 이해하고, 이들에게 복음적 삶이 무엇인지를 증언해야 합니다. 미래의 주인공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자기 삶의 주인공이라는 주체적인 의식에서 신앙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군 선교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청년기를

보내는 군 생활에서 신앙 체험은 결정적이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도전을 신앙의 힘으로 극복하는 기쁨, 미래를 구상하면서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는 이 기간에 하나님을 깨닫는 체험은 전역 후의 삶과 신앙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군 선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은 물론 일선에서 군 선교를 담당하는 군목들에 대한 여러 형태의 지원을 통하여 군 선교의 전 문화를 꾀해야 합니다.

#### ④ 파트너십 안에서의 세계선교

일부 한국교회의 세계선교가 현지 교민교회를 분열시키고, 현지에서 심각한 문화충돌을 일으키고 있다는 지적은 새롭지 않습니다. 돈을 앞세운 공격적인 선교, 19세기 백인 선교사들보다 더 강화된 선민의식, 선교사 상호 간의 불신, 파송 기관 혹은 후원교회와 선교사들 사이에서 제기되는 선교비 문제 등은 섬김으로서의 세계선교를 크게 훼손시키고 있습니다. 복음의 빛을 갠기 위해 세계선교의 대열에 함께한 우리는 형제 자매애에 기초한 섬김으로서의 세계선교에 동참해 왔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현지교회와의 파트너십에 기초한 동역 선교를 추진함으로써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에게서 배우는 자세로 세계선교에 임했습니다. 우리는 상호존중과 신뢰를 기반으로 하고 파트너십을 중심으로 한 에큐메니컬 세계선교의 전통을 지켜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의 '상하적 일치'가 아니라, '평등한 일치'를 가시적으로 실현하는 것이 파트너십 안에 있는 세계선교입니다. 그러나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미전도 지역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땅끝까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행1:8)라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선교 위임을 우리의 모든 힘을 다해 신실하게 성취해야 합니다.

#### (4) 희년 선교지침

궁극적으로 전도를 포함한 모든 선교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성서에는 희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제시되었습니다. 희년은 자연과 백성이 다 함께 하나님을 예배드리며 서로 바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따라서 희년 선교는 넓은 눈과 관계의 눈을 함께 갖습니다. 넓은 눈은 우리의 선교의 영역을 자연 생태까지 넓히자는 것입니다. 관계의 눈은 자연과 인간의 정치, 경제적인 삶, 이 민족의 평화와 인류의 평화 이 모든 것이 서로 얽혀 있음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희년 선교는 창조 질서 보전 문제와 더불어 경제 문제, 민족의 평화 문제를 함께 다룹니다. 그리고 이 희년의 실현은 지구촌에 관한 것이기에 교회가 선한 일을 하는 모든 단체와 연대하는 선교구조를 갖추어야 합니다.

#### ① 창조 질서의 보전

예수 그리스도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더 얻어서 풍성함을 얻게 하려고 왔다'(요10:10)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생명을 파괴하는 현실과 대결하면서 생명을 지키고 풍성하게 하는 일에 참여하려고 합니다.

농약에 의한 토지의 오염, 항생제와 성장 촉진 호르몬을 사용한 사료, 유전자 조작 식품에 의한 식량과 식품의 위기는 구조적이고 대규모로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희년 선교는 농촌과 도시를 함께 살리는 운동이어야 합니다. 지역 중심의 생산공동체 운동, 생협 운동, 도농 직거래 등 도시와 농촌이 함께 살 수 있는 연대운동을 확대 심화해야 합니다.

특히 기장 전체 교회의 약 40%가 농어촌의 읍, 면에 소재한 현실을 고려할 때, 농어촌교회 문제는 매우 안타깝고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우리는 농어촌과 도시가 더불어 살아갈 뿐만 아니라, 생명 문화를 함께 만들어 가는 일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모색하고 그 일에 참여해야 합니다.

## ② 하나님의 정치경제 실천

우리는 지금까지 정치적 민주화와 인권에 초점을 맞춘 선교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경제정의와 경제민주화를 위한 참여를 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신자유주의'의 이데올로기와 '경제적 세계화'의 희생자들의 편에 서야 합니다. 한편으로는 인류를 이룬바 20대 80의 사회로 양극화시키는 세계화 이데올로기의 물신 승배적 성격을 폭로하고, 희생자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투쟁해야 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세계화에서 소외된 사람들, 곧 실업자, 노숙자, 어린이와 노인 등 직접적인 희생자들을 섬기는 디아코니아 선교, 지역에서의 대안경제 운동,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 등 불의한 기구들의 개혁을 위한 연대투쟁을 전개해야 합니다. 또한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와는 다른 새로운 '삶의 방식'(라이프스타일)을 우리는 보여주어야 합니다.

경제 세계화는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의 대규모 이동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이미 40만 명을 넘어선 불법, 합법 체류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인권 차원에서의 복지선교는 더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언젠가 자기 나라로 돌아갈 이들에 대한 선교는 국내에서 이미 시작하는 해외 선교의 일환입니다.

## ③ 평화통일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는 등 남북관계는 비교적 전향적으로 개선되어왔습니다. 우리는 분단상황의 극복과 민족의 화해를 위해 많이 노력해왔고, 앞으로도 남북의 평화적 공생을 위한 상호 교류와 협력의 강화, 분단체제의 극복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입니다. 우리는 남북의 화해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은 물론 민족의 의식변화도 함께 추진해야 합니다. 남북의 화해와 평화적 공생을 위해서는 군축, 악법 개폐, 불평등한 한·미 행정협정 개정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 ④ 민족의 화해

우리나라는 남북으로만 분단된 것이 아닙니다. 지역주의, 연고주의 등 동서로도 분열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동서 지역주의도 극복하지 못하면서 남북의 갈등을 극복하기란 기대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지역주의를 청산할 수 있는 정치개혁 운동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몸으로 장벽을 허무셨습니다'(엡2:14). 십자가로 원수 된 것을 소멸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들, 유대인과 이방인을 위해 죽으셨고, 또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인간을 나누는 장벽을 무너뜨렸습니다. 이제부터는 이방인과 가족, 친구와 적을 구별하는 어떤 장벽도 있을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집의 식구입니다.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시며', '그들 가운데서 안식하시기' 때문입니다. 둘로 나뉘진 민족, 적대적인 집단들 사이에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화해한 새로운 인간으로서 민족의 화해를 위해 일해야 합니다.

### 3) 교육 지침

#### (1) 은총교육 지침

은총 교육은 말씀이 선포되고 성례전이 이루어지는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예배교육의 목적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을 받아 누리게 하는 데 있습니다. 예배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을 성만찬을 통해 몸으로 경험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총에 응답하는 우리들의 찬양과 기도와 친교와 생활로써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의 대화가 되고 계약이 됩니다. 따라서 예배는 은총을 경험하는 통로인 동시에 은총교육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은총의 신앙을 껴함으로써 교회교육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삶의 양식을 지닌 책임 있는 신앙인을 기를 수 있습니다(롬12:1~2). ‘그리스도교적 안목과 가치를 지닌 책임 있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영을 받은 성서적인 인간의 존엄성에 기초해서,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분별 있는 선택을 하며, 책임 있는 행동을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베드로의 말대로 ‘선택받은 자, 왕의 제사장, 거룩한 국민, 하나님이 점지한 백성’임을 감사하고 찬양하며(벧전2:9)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 ① 예배에 참여하여 은총을 받고 누립니다(출20:3~8, 롬12:1~2)

우리는 예배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 주시며(고전 11:26), 생명을 나누어주시는 은총을 받습니다(고전10:17). 예배 안에서 이루어지는 죄의 용서와 죽음에서 부활로 옮겨지는 생명변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은총의 잔치를 누리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예배 안에서 이웃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을 만남으로 세상을 섬기는 사명을 받고 능력을 얻습니다(요일4:19).

예배 교육은 예배론 교육이 아닌 예배의 은총 경험 안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참여시키는 데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전적인 예배와 더불어 현대인의 감성에 맞는 새롭고 역동적인 형태의 예배도 개발하고, 공동예배를 생활예배로 승화시키는 삶의 실천(프락시스)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는 예배를 교향악 연주처럼 봉헌합니다. 모든 회중이 참여자가 되어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웃을 섬기는 헌신을 다짐합니다. 예배에 참여한 모든 회중은 떨기나무 앞에서 선 모세처럼, 엠마오 도상에서 떡을 떼며 그리스도를 만난 제자들처럼, 하나님의 신비와 거룩을 체험하며 세상을 해방하는 선교의 사명과 능력을 받습니다.

#### ② 듣고 만나고 진리를 깨우칩니다(시119:105, 요16:13)

우리는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여서(고전15:1), 선포하고(고전9:18), 설교하고(마4:23), 증언하고(행20:24), 알리고(엡6:19), 전하며(살전2:2), 들려주고(행15:7), 믿게 합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를 언제나 새롭게 만나며,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관계를 갖습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며, 참사람을 이루어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사는 의미와 가치를 깨닫게 하고, 전체 하나님의 나라인 영원과 우주 안에서 자신을 발견하도록 이끄는 근원이심을 믿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며, 이웃과 삶을 나누고, 세상을 섬기며, 창조 세계를 책임지는 청지기로 살도록 하는 힘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말씀을 선포하고 듣는 가운데 성령께서 오셔서 예배를 이끌어 가십니다. 성령께서 진리를 깨닫도록 우리의 심령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배를 통해 “선생님은 그리스도입니다”(막8:29)하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스도는 “길ियो, 진리요, 생명”(요14:6)이심과 이 진리를 믿을 때 우리는 자유롭게 되고(요8:32),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됨을(요11:25~27) 깨우치게 됩니다.

### ③ 기도로 응답하며 은총을 누리고 나눈다(살전5:16~18)

우리는 마음과 정신과 영을 하나님께로 드높임으로써 주님을 만납니다. 이것이 찬양이며 기도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말씀에 대한 우리의 응답입니다. 지성·감성·의지 전부를 사용하여 기도드릴 때, 우리의 존재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나아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과 하나되는 체험을 합니다. 이런 기도는 기쁜 노래와 춤도 동반됩니다. 은총에 대한 응답이 생명의 잔치가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잔치가 벌어지는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계약사건이 새로이 일어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사랑과 생명, 정의와 평화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은 이루어주시고,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마7:7).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생명에 요긴한 다른 것까지 덧붙여 주실 것도 믿게 됩니다(마6:33).

우리는 굳은 믿음과 헌신을 나타내는 찬양기도로 하나님을 섬깁니다(습3:16~18, 잠16:16~26). 이미 받았으며 지금도 받고있는 은총에 감사드리며, 하나님을 흠모하고 하나님과 사랑의 친교를 나누는 감사기도로서 하나님을 섬깁니다(마22:37~39, 삼상2:1~11). 자신의 한계와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뉘우치는 회개 기도으로써 자기 자신도 섬깁니다(요일1:9, 눅18:13).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연약한 생명을 위해 중보기도를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이웃과 못 생명을 섬깁니다(빌4:6~7, 롬8:26, 27). 이런 응답들을 통해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고 나눕니다.

### ④ 예배를 통해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행1:8)

우리는 예배를 통해 우리 모두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제자로 초대받았음을 깨닫습니다. 그러기에 은총의 복음과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서 모든 장벽을 무너뜨리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행1:8)하신 말씀에 따라,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도를 전하고, 고난받고 상한 심령을 치료하고, 약한 생명을 섬깁니다. 정치, 경제, 문화, 생태 등,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의 거룩하고 정의로운 뜻을 실현합니다. 이런 일들을 위해 은총으로서의 교회교육은 일상생활 속에서 구체적인 우리의 삶과 역사의 쟁점들을 복음에 비추어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해결하도록 훈련합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총체적 구원이요 온전한 생명과 평화의 하나님 나라인 희년의 가치를 우리 안에 새기는 동시에 우리 밖의 세계에 실현합니다. 이로써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삶의 예배로 자라납니다.

## (2) 생명교육 지침

생명은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들에게 풍성히 누리도록 주신 선물입니다. 따라서 생명교육은 우리들의 인생을 축하하며 아름답고 선하게 가꾸어 갑니다. 생명교육은 하나님의 영을 받는 데서 출발합니다. 하나님의 영(루아하와 프누마)은 하나님의 숨결이고, 기운이고, 생기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우리들과 모든 피조물의 생명이 충만해지고 새로워집니다(시 104:30). 죽은 공동체와 역사도 되살아납니다(겔37:4~14). 생명교육은 성령을 모시고 살게 합니다. 성령은 우리를 도우시며(요16:7), 삶을 꾸짖기도 하시고(요16:8),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심으로(요6:13), 우리를 생명 가운데 살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생명교육은 성령에 응답하여, 복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게 할 뿐더러, 공동체를 건강하고 평화롭고 활기차게 합니다. 나아가 우리의 생명교육은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생태도 하나님께서 주신 충만한 생명을 누리도록 지키고 가꾸는 일에도 큰 관심을 갖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연 안에서 모든 생명이 살아가도록 그 질서를 정하셨음 알게 하는 것이(창1:11, 12, 24) 생태교육의 목표입니다. 이렇게 해서 생명교육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자연 안에서 온 생명이 함께 복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협동과 상생의 삶을 훈련합니다. 이 세계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문화에 대해서 생명문화를 일구어냅니다.

### 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가르칩니다(갈5:22)

생명교육은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인격을 닮습니다. 이 성령의 열매들은 세 차원의 관계에서 맺습니다. 첫째, '사랑과 기쁨과 평화'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맺는 열매입니다.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뜻대로 사는 '은총·생명·섬김의 영성'을 필요로 합니다. 세상(맘몬)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섬기며(마6:24), 하나님 나라를 구합니다(마6:33). 둘째, '인내와 친절과 선행'은 이웃과의 관계에서 맺는 열매입니다.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모든 이웃의 모습과 삶 안에 예수께서 계심을 인식하게 합니다. 작은 생명에게 나누는 것을 곧 주님을 섬긴 것으로 알게 합니다(마25:34~40). 모든 소유를 주님의 것으로 인정하며, 주님의 뜻대로 사용합니다. 사랑을 나눌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신실과 온유와 절제'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 맺는 열매입니다.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자신을 끊임없이 정화해야 합니다. 우리 안의 어두운 그림자들을 은총의 밝은 빛 가운데 드러내야 합니다. 물질과 감각적인 욕망에 대한 집착에서 자유로워지는 훈련을 해야하고, 하나님과 세계 안에서 자기의 위치와 역할도 바로 알아야 합니다. 겸소하고 분수에 맞게 살아가며 자신이 영적인 존재임을 늘 자각하며 생활하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 ② 생명문화를 이루는 삶을 교육합니다(사11:6~9).

생명교육은 '서로 돕고 함께 사는 가치'를 공동체 생활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삶에 내면화 시킬뿐더러, 그것이 이 세상의 가치가 되도록 생명문화를 일구어냅니다. 물질과 자본을 전부 아는 문화, 각종 영상매체의 범람과 함께 감각적인 쾌락을 좇는 문화, 사이버 공간의 가상 세계에 홀로 사는 개인 중심의 세속문화 속에서 교회교육은 더불어, 영적으로 건강하게,

그리고 기록하면서도 축제와 같은 삶을 사는 공동체 문화를 추구합니다. 또한 생명교육은 민족과의 관계에서는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민족 고유의 정체성과 주체성을 살리고 승화시켜 갑니다. 나아가 분단이 아닌 통일 시대를 살면서 한민족 공동체의 문화 동질성을 회복할 수 있는 교육을 해가면서 세계시민 의식을 더불어 갖게 합니다. 선포와 경칭(케리그마), 예배와 기도(레투르기아), 교수와 훈련(디다케), 친교와 생태(코이노니아), 섬김과 나눔(디아코니아)의 삶을 교육하는 교회는 신앙을 생명문화로 표현하고 펼치는 중심 장소입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하는 생명교육을 통해 생명문화가 퍼지고 뿌리내리게 됩니다.

### ③ 생태 안에 사는 교육을 합니다(롬8:19~23)

생명교육은 개발이란 명분으로 저지르는 생태계 파괴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역하고 인류의 삶을 멸망으로 몰아가는 큰 죄악으로 알고 생태계와 새로운 관계를 맺게 하려고 합니다. 자연은 단순한 물질의 집합이 아닙니다. 자연(생태)은 하나님의 명을 받아 땅의 생물들을 있게 하고 풍요롭게 하며 하나님의 생기를 간직한 생명의 품입니다(창1:11, 12, 20, 24, 겔 37:9)). 또한 자연의 생명과 우리의 삶은 얽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죄와 불의로 자연도 탄식 가운데 있으며, 함께 온전한 구원을 기다립니다(창3:17~18, 롬8:18-25).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교육은 자연보호나 자연의 벗이 되는 차원을 넘어, 하나님이 내신 자연의 질서 안에 사는 삶을 인식하고 익히도록 돕습니다. 이런 자연에 대한 이해를 통해 생명교육은 물질과 정신을 이분법으로 아는 그릇된 신앙을 극복하고, 생활에 필요한 물질을 통해서 영적인 경험을 하도록 돕습니다(성만찬). 생명교육은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통하여 계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시는”(엡4:6) 하나님을 새롭게 성경 속에서 발견하고 해석하여 이 역사뿐만이 아니라 생태 속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합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날 생태문제에 대해 원인을 분석합니다. 이 문제에 대한 자신과 인류의 책임을 깨달으며, 해결책으로서 생태적 삶에 대한 신학적이고 성서적인 통찰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들과 만물의 움살스러운 관계를 경험하도록 돕습니다.

### ④ 생명의 청지기 교육을 합니다(고전4:1,2)

생명교육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맡기려고 빚으신 작품, 곧 청지기임을 알게 합니다(엡2:10).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청지기로서의 책임을 깨닫게 하고, 은사들을 훈련하게 함으로써, 하나님과 이웃과 세계 앞에서 ‘충성된 일꾼’으로 살게 합니다(계2:10). 성령 안에서 허락받은 삶 전체를 드러 하나님 뜻에 헌신하게 합니다. 우리의 생명, 몸, 시간, 재능, 물질 등 모든 것을 주의 청지기답게 관리하고 사용하도록 합니다. 그 자세에 있어서 우리는 자유인이 된 주님의 자녀로서 기쁘게 봉사하게 합니다. 생명교육은 교회 안에서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자연과 역사 안에서 생명의 청지기로 사는 구체적인 과제와 방법을 교육합니다. 이와 같은 청지기 직분은 몸과 영, 물질과 정신, 하나님의 인격성과 초 인격성 그리고 내재성과 초월성, 개체의 고유성과 다른 생명과의 연대성, 말씀교육과 성령의 창조적 활동 등을 통전하여 익히고 수행합니다. 또한 지성적인 능력과 더불어 절제와 나눔, 영적 자유와 깊이, 감수성의 순화, 공감 등과 같은 몸과 의지와 정서적인 능력을 키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온 피조물이 서로 그물 같이 얽혀 의존하고 있음을 인식하며 일합니다. 아울러 남녀의 상보성, 평등성, 고유성을 인식하고, 여성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차별하고 상품화하고 소외시키는 죄를 극복하여 생명의 관계를 맺게 합니다.

### (3) 섬김교육 지침

하는 일과 그 정도가 다를 뿐 그리스도인은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말씀과 세상을 섬기는 자녀로 부름받았습니다(딤후3:16~17). 하나님께서는 세례받은 그리스도인 모두를 제사장으로, 예언자로, 그리고 선한 통치자(왕)로 섬김의 일을 하도록 부르셨습니다(막10:45, 눅4:18~19, 딤펢전3:8~13). 그리스도인들의 섬김은 세상의 일과는 그 목적과 방법이 다릅니다(막10:41-45). 힘으로 정복하고 내리눌러 거짓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은 사랑의 섬김이요, 정의의 섬김이요, 평화의 섬김입니다. 사랑과 정의 그리고 평화는 세상의 힘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생기고 행사하는 생명의 힘이며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러기에 영적인 힘이요, 이런 힘은 영성훈련을 통해서 기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섬김 교육은 그대로 사랑과 정의와 평화의 영성교육입니다.

#### ① 사랑의 영성을 기릅니다(고전13:4~7)

먼저 하나님을 섬기는 영성을 기릅니다. 하나님(창24:40, 출10:8~11, 신6:13, 마27:55, 요12:26)을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수22:5), 기쁜 뜻으로(대상28:9, 시100:2, 엡6:7), 한마음으로(슥3:9), 열심히(롬12:11),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도 항상(단6:16), 그리고 영원히(대상15:2) 섬깁니다. 이것이 하나님 사랑입니다(막12:29, 30). 그리스도께서 행하시고 가르쳐 주신 대로, 이웃이 고난에 처했을 때, 구체적으로 먹을 것을 주고, 입을 것을 주고, 돌보아 주고, 찾아가 섬깁니다(마25:38~40). 이것이 이웃 사랑입니다(막12:31). 섬김교육은 하나님과 세상을 섬길 때 오래 참고, 친절하며,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으며,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으며,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사랑의 영성을 형성합니다(고전13:4~7).

#### ② 정의의 영성을 기릅니다(미6:8)

하나님 섬김과 이웃 섬김은 분리할 수 없기에(막9:25, 요14:21, 롬12:25, 고후9:1, 엡6:5, 7, 딤펢전6:2)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듯이 이웃을 사랑하고 섬깁니다(고후9:12). 이웃을 사랑하는 일은 곧 정의입니다. 약한 이웃을 섬기는 정의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과 같음을 알게 합니다(마25:13). 우리의 정의는 자기의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거나 강한 자가 베푸는 자선이나 공적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따라 서로 겸손하게 받들고 섬기는 사랑입니다(빌2:1~11). 하나님 사랑을 이웃에게 정의로 드러내는 모든 마음과 삶을 기르는 것이 정의의 영성교육입니다. 정의의 영성을 기를 때, 우리는 우리가 공동체적인 존재인 것처럼, 섬김도 홀로가 아니라 이웃과 더불어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정의의 연대성 교육입니다. 또한 세상을 위한 섬김은 구체적인 직업으로 수행되므로,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의 평등함을 인식하며, 성실하고 충성스러운 일로써 생산한 결과를 이웃이 활용하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합니다. 정의의 영성은 인간의 악과 죄가 밖으로는 구조 악으로 드러나기에 그리스도인 개개인을 거듭나게 할 뿐만 아니라 사회개혁과 정의 실현에 참여하도록 합니다. 이런 정의의 영성은 우리 자신과 세상 안에 있는 죄와 악의 실체를 분명히 알고 대응하는

과학적이고 비판적인 통찰을 동반합니다.

### ③ 평화의 영성을 기릅니다(마5:9)

생명교육은 예수님의 ‘주’되심이 바로 ‘종’되심에 있음(막14:36)을 인식하여, 지배하고 다스리는 지도력이 아니라 돕고 섬기는 지도력을 훈련합니다(고후1:24). 예수께서는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몸값으로 치러 주려고 왔다”(마20:26~28)고 하셨습니다. 이런 섬김은 평화의 힘을 갖습니다. 정의와 평화는 단짝이며, 평화의 힘을 통해서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우며…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서로 해치거나 파괴하는 일이 없다”(사11:5-11)하는 말씀처럼 우주적인 온전한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 교육은 평화의 영성을 기릅니다. 평화의 영성은 죄와 악과 불의에 대해 무저항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사랑과 정의를 위해 바르게 은총의 힘을 사용하는 방법을 훈련합니다. 또한 은총의 힘을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웃을 받들고 돕고 섬기는 데 사용하도록 합니다(갈5:13). 생명교육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통해 영원한 소망과 마음의 쉼을 얻게 합니다. 동시에 가난한 이웃, 장애우, 온갖 고난 가운데 있는 생명과 연대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써 거룩한 해방의 친교를 실천하게 합니다.

### ④ 말씀의 영성을 기릅니다(딤후3:16~17)

영성은 우리의 믿음, 고백과 결단, 하나님을 향해 가는 순례, 말씀대로 사는 실천 전체를 포괄합니다. 이런 영성의 뿌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담긴 성경의 말씀에 굳게 서서 교회의 전통과 우리들의 경험을 통합해 갈 때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영성이 형성됩니다. 그러기에 생명교육은 사랑과 정의 그리고 평화의 영성을 기르기 위해 언제나 성경 앞에 무릎 꿇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섬기는 말씀의 영성을 훈련합니다. 성경 앞에 무릎 꿇는 것은 성경을 비평의 대상이 아니라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 것은 성경을 여러 방법으로 끊임없이 읽고 탐구해서(시11:2) 하나님의 뜻을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 아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만 비평적이고 학문적인 성서 연구가 겸손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섬기는 것은 성경을 존중히 여기는 것과 함께 성경에서 듣고 깨달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 섬김은 곧 세상을 섬기는 일과 하나가 됩니다. 아울러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섬기기도 하고, 이웃의 짐을 함께 지는 행동으로도 섬기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눅1:2, 행6:4). 말씀의 영성을 훈련할 때, 이원론적인 타계주의나 무교적인 기복주의가 아니라, 온 영역이 모두 하나님의 한 세계라는 관점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진정한 복이 주어진다는 관점에서 성경을 읽도록 안내합니다. 성경연구에 있어서도 단편적이고, 문자적이고, 평면적인 이해를 벗어나서 복합적이고, 영성적이고, 입체적인 연구방법을 도입하여 말씀의 의미를 바로 파악합니다.

### (4) 희년교육 지침

희년교육의 목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제자양육에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고, 성령을 통해 생명과 능력을 풍성히 받고, 정의와 사랑과 평화의 영성을

말씀으로 간직하신 그리스도인은 제자훈련을 받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이를 제자입니다. 일이란 인격의 표현이고, 인격은 영성의 표현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나라의 제자를 기르는 일은 먼저 제자의 품성, 곧 제자직의 영성을 훈련하는 일이 그 기초입니다. 이럴 때 제자양육을 위한 희년교육의 내용이 팔복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마5:3~10). 이 팔복은 누구보다 제자들을 향한 가르침입니다(마5:1). 제자들을 위한 특별훈련이요, 비밀훈련입니다. 고난이 따르는 길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실현을 위한 삶의 덕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의 제자직에 복이 선포되고 있습니다(마5:11-12). 그러므로 제자교육은 부활생명의 기쁜 자리에서, 축제의 삶으로서 가르쳐야 합니다. 또한 한 단계씩 여덟 계단까지 제자직의 덕목을 훈련함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향해 순례하도록 인도합니다.

### ① 마음이 가난한 제자와 하늘나라(마5:3)

가난은 물질의 가난과 심령의 가난 모두를 뜻합니다. 무소유, 겸손, 순수, 정직, 단순, 고요, 무소유가 다 가난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실제로 이 땅에서 궁핍한 사람들이며, 이들과 삶을 함께 나누는 사람들입니다. 영적인 가난이 있습니다. 자기를 비울 줄 아는 마음입니다. 또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하나님을 찾는 마음입니다(시42편). 이런 가난한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통로가 되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투쟁하여 영적인 풍요를 나누는 바탕이 됩니다(시33:19). 또한 가난한 마음은 물질주의, 개인주의, 권위주의 따위에 맞서는 개혁의 마음입니다. 나아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재물에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시72:4). 이런 가난한 제자는 하늘나라를 복으로 받습니다.

### ② 슬퍼하는 제자와 위로(마5:4)

마음이 가난해지면 슬퍼할 줄 알게 됩니다. 주님께서서는 우리 자신을 위해 올라고 하십니다(눅23:28). 슬퍼함은 자신의 죄와 허물을 아파하고 뉘우치며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행동입니다. 이 슬픔은 아픈 마음만이 아니라 자기의 죄 된 삶을 고치는 행동입니다(눅19:8~9). 슬퍼하는 사람은 세상의 비극을 남의 탓으로만 돌리지 않습니다. 내 안에서 발견합니다. 슬픔은 공감의 능력이기도 합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생명을 보시면 예수님은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능력을 일으키셨습니다(눅7:12~15). 이런 공감의 능력이 있을 세상을 사랑하는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게 됩니다. 이런 슬퍼하는 제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위로받는 복을 누립니다(눅7:36, 시51편).

### ③ 온유한 제자와 땅(마5:5)

슬퍼할 줄 아는 사람은 온유해집니다. 온유는 잘 길든 짐승이 주인의 지시에 고분고분 따르는 품성을 뜻합니다. 따라서 온유한 사람은 자기 고집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고 일합니다. 생각, 말, 감정, 욕망 등을 조절하여 주의 자신을 다스림에 맞추는 절제의 덕을 가집니다(딤후1:7). 온유한 사람의 마음은 부드럽고 넓고 관용이 많습니다. 남을 따뜻하고 편안하게 해주고 용서해 줍니다. 온유는 가혹, 독단, 탐욕, 완력 따위에 호소하지 않는 겸손한 힘입니다(시37:11). 온유한 사람은 먼저 자기 안의 분노를 다스리며, 자신의 마음 상태와 행동을 늘 점검합니다. 그러나 온유는 나약함이 아니라 오히려 내적 견고함과 영적 성장의 표시입니다. 온유한 제자는 쉽게 실망치 않으며, 끈기 있고, 까다롭지 않고, 친절하며,

자상하고, 기다려 주고, 용서함으로 생명의 땅을 선물로 받습니다(시26:11).

#### ④ 의에 주리고 목마른 제자와 배부름(마5:6)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찾기에 언제나 하나님의 의와 의로운 가르침에 목말라 합니다(시41:2~3). 먹을 양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로운 말씀에 기근을 느낍니다(암8:11). 의에 주리고 목마른 사람은 늘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 신의를 지키시고 억눌린 자들의 권익을 보호하시며, 굶주린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묶인 자들을 풀어주시며, 앞 못 보는 자들을 눈뜨게 하시고, 거꾸러진 자들을 일으켜 주시며, 의인을 사랑하시고, 나그네를 보살펴주시며, 과부들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찾습니다(시146:6-10). 나아가 하나님 말씀으로 영적 갈증을 해소합니다. 이런 제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먹음으로써 배가 부르고 꿀 같은 맛과 영양을 공급받는(겔3:2, 3)복을 받습니다.

#### ⑤ 자비한 제자와 자비를 입음(마5:7)

의에 주릴 때 자비의 행동이 나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좀처럼 노하지 않으시며 사랑이 한없는 분”(욘4:2)이시기 때문에 내리려던 공의로운 심판도 거두십니다. 자비로운 마음은 가난하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려는 선한 마음에서 나오는 사랑입니다. 초대교회 신자들은 소유를 아낌없이 공동으로 나누어 서로 자비를 실천한 제자 공동체였습니다(행2:43~47). 이웃을 용서하는 일도 자비에 속합니다. 자비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다’(행20:35)하는 말씀처럼 공동체에서 서로를 형제자매로 맞아들이고 사랑을 베푸는 행위입니다. 불행과 곤란을 당하는 이웃과 생명을 불쌍히 여기고, 함께 아파하며 돌보고 치료하는 사마리아인의 정신입니다(눅10:37). 이런 자비를 베푸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비를 입는 복을 받습니다(마6:12).

#### ⑥ 마음이 깨끗한 제자와 하나님을 뵈(마5:8)

하나님의 자비를 입으면 마음이 깨끗해집니다. 깨끗한 마음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상태입니다. 본래의 마음입니다. 깨끗함은 겉모습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삼상16:7). 그러기에 우리의 내면 바탕이 깨끗해야 합니다. 심령이 깨끗해야 또렷이 하나님을 뵈 수 있고 사물을 꿰뚫어 보는 지혜를 갖게 됩니다(시19:8). 깨끗한 마음은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만 향해 있는 순결한 마음이기도 합니다(약4:8). 마음이 깨끗하면 도덕적으로는 정직하며, 이중적이지 않고, 진실하며, 악에 물들지 않습니다. 영적으로는 늘 성령을 그 마음과 삶에 모실 수 있으므로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친절, 착함, 신용, 온유, 절제 등의 열매를 맺습니다(갈5:22~23). 깨끗한 삶을 살아가는 길은 오직 주님을 찾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데 있습니다(시119:9,10). 이렇게 마음이 깨끗한 제자들은 주님을 직접 뵈고 먹고 마시는 복을 받습니다(출24:11, 막9:2~8).

#### ⑦ 평화를 이루는 제자와 하나님의 자녀(마5:9)

마음이 깨끗하여 하나님을 뵈게 되면 진정한 평화가 옵니다. 마음의 평화를 이룬 사람은 이웃과 자연과도 화해합니다. 성서의 평화는 평화를 사랑하고 누리는 평화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평화를 만드는 행동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뛰어듭니다. 싸움 없는 상

태를 넘어, 분열이 있는 곳에 가서 적극적으로 화해를 이루고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듭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제자는 하나님을 평화의 근원으로 굳게 믿습니다(삿6:24, 사45:7-8). 그리스도께서 평화 자체이심을 확신합니다(엡2:14).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는 세상의 평화와는 다름을 압니다(마10:34~39). 이 평화는 세상의 죄 되고 낡은 질서로 유지되는 평화가 아니라 하늘나라의 새 질서로 이루어지는 평화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평화는 세상의 평화와는 반대될뿐더러 싸움을 통해 새롭게 세울 평화입니다. 그리고 이 평화는, 이 세상을 위한 때에도, 보이는 나라를 위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영적인 것입니다. 이런 평화를 이루는 제자에게는 하나님이 자녀라고 불리는 복이 주어집니다(롬 8:16, 요일3:1, 2).

### ⑧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제자와 다시 하늘나라(마5:10)

적극적으로 평화를 이루다 보면 필연 불의와 거짓 평화로부터 박해받습니다(마 10:16~18). 그 본보기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입니다. 수많은 예언자와 사도들과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 복음을 전하고, 불의를 고발하고, 악과 싸우다 고난을 받고 순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오늘도 하나님의 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낡은 고난을 채웁니다. 그러나 정의를 위한 고난은 아름답습니다(벧전 1:19). 하늘나라가 복으로 주어집니다. 십자가를 진 후에는 부활생명이 주어집니다. 끝까지 견딘 제자에게는 구원이 선물로 주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를 행하다 박해받을 때는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마5:12). 박해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자직은 특별합니다. 굳센 믿음과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신과 낯다른 복음의 열정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따로 불러 훈련시키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나라를 위한 제자직은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도구이면서도 영광된 직분입니다. 희년 교육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제자직을 향해 자라나게 합니다.

## 4) 생활 지침

### (1) 은총 생활 지침

은총 생활은 우리들의 삶의 출발입니다. 우리들의 생명과 삶은 하나님이 주시는 온갖 은총의 선물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이 은총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드러나고 예배를 통해 경험됩니다. 우리들의 삶은 선하며 아름답습니다. 하나님께서 내시고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은총을 받아 생활할 때, 우리들은 죄의 노예가 되지 않고, 인생을 비극이나 허무로 느끼지 않습니다. 탐욕과 물질에 노예가 되지 않고, 건강하고 기쁘게 살게 됩니다. 그러기에 '은총 생활'은 우리에게 그대로 '복된 생활'이 됩니다.

### 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생활

생명과 삶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셨습니다. 따라서 온 생명은 자신의 근원이신 창조주님을 기억해야 합니다(출31:12~17).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방하고 구원하십니다(출 20:1~2).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평화와 생명이 풍성한 곳으로 이끌어 가십니다(시23:1-3). 그러기에 우리는 늘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의 말씀 따라 살겠다는 다짐을 합니다(수24:24). 주님을 경외하는 것을 지식의 근본으로 삼습니다(잠1:7). 주님만 의지하고 선을 행하며, 기

뵙은 오직 주님에게서 찾습니다(시37:3~4). 주님을 기억하고 살 때, 우리들의 삶이 안전해지고, 복 가운데 있게 됩니다. 우리가 곤경에 처해서 간절히 주님을 찾으면(시42:1), 주님은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며, 자비와 구원과 해방을 베풀어주시기 때문입니다(왕상8:22~53).

### ② 찬양하며 감사하는 생활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모습을 따라 지으셨습니다(창1:27). 손수 당신의 영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창2:7).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창1:28), 생명 동산에서 못 생명들을 돌보며 기쁨 가운데 살게 하셨습니다(창2:15~25). 비록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 가운데 빠져서, 심판과 멸망 아래 놓여 있을 때도,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너그러우시고 사랑이 많으셔서 내리려던 재앙도 거두십니다(은4:2). 구원의 옷을 입히시고(창3:21), 보호하는 표를 주시며(창4:15), 방주를 마련해주십니다(창6:11~22). 구원의 무지개를 하늘에 두시고(창9:12~13), 그 아들을 구원자로 보내주셔서(요3:16), 우리를 자녀와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롬8:12~17). 이처럼 우리는 귀합니다. 은총과 구원 가운데 있습니다. 마땅히 우리는 비록 아픔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라도,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리며 살아야 합니다. 이 찬양과 감사의 생활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허락받은 생명과 삶을 마음껏 누릴 수 있습니다.

### ③ 계명을 지키는 생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주신 계명은(신5:1~22) 우리를 옳아매는 딱딱한 율법이나 부담스러운 요구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물로 삼으시고 거룩하게 택한 백성이란 표시로 주신 선물입니다(출19:5~6). 이 계명들을 성심껏 지키면 번영합니다(신7:12~5). 예수님은 모세가 받은 계명을 더 온전하게 지킬 것을 요구하시며(마5:17~20), 이 계명의 골자를 ‘온 힘껏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막12:28~34, 신6:4~5, 레19:15). 또 이 계명을 완성하기 위해서 새 계명을 주셨는데,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입니다(요13:34). 사랑의 생활을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임이 증거되며(요13:35), 희생하는 사랑을 통해서는 놀랍게도 그리스도의 벗이 됩니다(요15:13~15). 그러기에 복 있는 사람은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그 계명을 묵상합니다(시1:1~2). 계명을 실천해서 반석 위에 집을 지음 같이 든든한 인생이 됩니다(마7:24~25).

### ④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생활

우리들의 신앙터전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믿음입니다(마16:13~20). 이 믿음의 반석이 없거나 흔들리면 삶의 기반이 무너집니다. 오늘날 우리는 수많은 가치관과 가르침들의 혼돈 속에 살고 있어서 무엇이 참인지 선택하기조차 힘듭니다. 이럴 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요14:6) 하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확실한 음성을 듣습니다. 이 소리대로 예수를 믿고 따르면 하나님께 이르게 됩니다(요14:6-14). 예수님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하고 물으십니다(마16:15). 여전히 우리는 예수님을 한 위대한 교사나 정의감이 뛰어난 큰 예언자의 한 분으로 존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할 때, 또 이 고백을 늘 삶에서 확인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리에 듭니다. 자아와 삶에 중심이 서게 되어 방황하거나 빛나가지 않게 됩니다. 구원의 확신 가운데서 힘차게 살 수 있습니다.

### ⑤ 영원한 생명을 위해 사는 생활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눅10:25) 하는 질문은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던지는 질문이며, 우리들의 궁극적인 관심사입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게 되고, 소망하게 되고, 품을 수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에 대한 관심과 믿음이 없을 때, 사람은 인생을 허무한 것으로 여기고 맙니다. 쾌락을 좇고, 탐욕 가운데 살아가고, 하늘이 아니라 이 땅에다 보화를 두고 삽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하고 신비로운 하나님의 시간과 공간에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있게 된 존재입니다. 이 땅에 머무는 삶이 끝날 때도, 끝이 아닌 하나님의 영원한 은총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영원한 생명을 믿고 바라면서, 선하고 거룩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피조물의 유한성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 ⑥ 성령을 모시고 사는 생활

성령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자신의 생기입니다. 이 생기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사람은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고(창2:7), 죽은 역사와 공동체도 힘차게 살아납니다(겔37:1~10). 성령은 예수께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보혜사이십니다(요16:7). 보혜사 성령은 우리를 깨우치시는 영이요,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는 영이십니다(요16:8~13). 이 성령께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오셔서, 모두를 하나로 만드시고(행2:1~13), 힘차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습니다(행4:3). 서로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가진 것을 함께 나누는 새 공동체인 교회를 이루게 하셨습니다(행2:43~47, 4:32~37). 이처럼 성령을 우리 삶에 모시고 살 때, 우리는 참 생명을 누리며, 성령의 여러 능력 가운데 살게 됩니다. 심령이 새로워지고 거듭날 뿐 아니라, 온 세계의 모든 피조물이 이 성령을 간직함으로 생기를 얻습니다(시104:30).

### ⑦ 성령의 열매를 맺는 생활

성령의 열매들은 성령께서 함께하시는 증거요, 복된 삶의 증거입니다. 성령은 생활에서 여러 행실로 나타나 아름다운 결과들을 만들어냅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갈5:22). 이런 아름다운 삶의 열매들은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 살아갈 때 맺으며, 우리를 율법이 아니라 자유의 복음 아래 있게 합니다(갈5:18). 성령의 열매라는 말씀에서 성령 체험에 대한 이해도 새롭게 갖습니다. 열매란 단번에 맺어서 익는 것이 아닙니다. 가꾸고 돌보아야 하고, 일정한 시간이 지나야 자라고 영글게 됩니다. 성령의 체험도 이와 같습니다. 성령을 통해 우리는 단번에 변화되고 놀라운 은사를 받아 구원의 확신을 갖고 기쁨을 맛보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끊임없이,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믿음과 은사와 선한 행실들을 키워가야 합니다.

## (2) 생명 생활 지침

주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레11:45)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생활이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들이 살아야 할 영적이고 거룩한 삶을 말함

니다. 우리들의 삶에 생명이 오려면 하나님을 향해 우리들의 열과 삶이 자라야 합니다. 그러기에 '생명생활'은 말씀과 더불어 살면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영성생활'이기도 합니다. 영성생활은 영적인 삶에 대한 지식이나 이론을 아는데 머물 수 없습니다. 또 우리들의 영성생활은 개인적이고 내면적인 차원에 한정될 수 없습니다. 세상을 벗어나서 하는 생활이어서도 안 됩니다. 세상 안에서, 그 누구나,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생명생활인 영성생활을 초대교회서부터 이어온 아침, 한낮, 저녁에 드리는 매일기도를 중심으로 짜인 하루의 생활에, 성서와 그리스도교 전통에 있는 영성훈련 방법에 담아 안내합니다.

### ① 아침에 일어나서

매일 아침 눈뜨는 밤의 어둠에서 건짐받는 부활과 같습니다. 눈을 뜨면, 또렷한 생명의식을 갖기 위해, 두 손으로 얼굴을 문지르고, 귀를 문지르고, 손발을 문지릅니다. 새 몸을 짓는 일을 뜻합니다(창2:7, 막7:31~37). 그럼으로써 생명체인 몸을 부드럽게 하고 열이 깨어나게 합니다. 다음에는 해 뜨는 동쪽을 바라보고 앉습니다(겔43:1~5, 사24:14). 해는 빛 중의 빛이요, 의의 태양이신 주님의 상징입니다(말4:2, 요1:4, 8:12). 집안에서는 빛이 스며드는 쪽을 향해 반듯이 앉아, 마음 가운데 주님을 그리면서 모십니다. 이로써 하루를 밝음이신 주님과 함께 엽니다. 다음으로 숨쉬기 수련을 합니다. 숨쉬기는 가장 중요한 운동이며 생명 활동입니다. 먼저 맑은 아침 공기를 가슴이 시원할 때까지 들어 마시고 내쉽니다. 다음에는 한 오 분 생기 숨을 쉬며 온 우주에 충만한 하나님의 생기를 마십니다(창2:7, 시104:30, 겔37:9~10). 온몸이 활기찰 때까지 들이쉬고 내쉬고 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묵상합니다. 바로 앞에 그리스도가 있다고 느낄 때쯤 “성령을 받으라”(요20:22) 말씀하시며 내쉬는 그리스도의 숨결을 받습니다. 그리스도가 보내주시는 성령이 맘에 가득 차서 기쁨과 평화가 생기면 아침기도를 드립니다. 그날의 성경을 읽습니다. 이 훈련을 새벽기도 시간에 할 수도 있습니다.

### ② 음식을 먹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는 일로 하나님을 인식했습니다(출16:12). 예수님은 무리들에게 자기 몸은 참 밥이고, 자기 피는 참 물이니, 먹고 마셔야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요6:33~35, 53~58)고 말씀하시며, 부활하시고는 직접 제자들에게 아침상을 차려 먹이셨습니다(요21:9~13). 그러기에 음식을 먹는 일은 하늘을 몸예다 받는 일이요, 그리스도가 내 살과 피에 있게 하는 성만찬입니다. 이 때문에 음식은 아주 귀하게 대하며, 주님께 감사기도를 드린 후 먹습니다(막6:41). 음식 먹는 일은 거룩한 일이기엔 꼭 일용할 양식만 마련하고(출16:16~18, 눅11:3), 남기거나 버리지 않습니다. 나아가 이 일용할 양식을 나눔으로써 모두가 먹고도 남는 풍요를 이루어야 합니다(레25:5~7, 막41~44). 이렇게 음식 먹기를 통해, 그리스도를 모든 생명 안에 계시게 해서, 이 세계를 정의롭게 합니다. 음식을 통해 그리스도를 가득하게 모신 우리 또한 거룩한 존재가 됩니다.

### ③ 일할 때

해가 있는 동안에 일해야 합니다(요9:4). 하늘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우리도 모두 일합니다(창1:1). 일의 목적은 생명을 풍성케 하는 것입니다(눅7:21~23). 따라서 일의 본성은 사랑입니다.

니다. 나를 바치는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요12:24~26) 온 곳에 생명이 열리며,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며(13:35), 궁극에는 그리스도의 벗이 됩니다(요15:14). 그리스도께서 손과 발로써 이웃을 살리고 섬기셨으므로, 일은 반드시 자기의 몸을 움직이는 정성과 땀이 들어가야 합니다(막9:23~25). 저녁의 쉼을 맞이하기까지 모든 사람은 하루에 하나씩 주님과 자연과 이웃을 위해 몸을 바치는 일을 합니다. 이 일하는 중간에 한낱 기도를 드립니다(살전5:7, 8).

#### ④ 쉼 때

깨어서 일하는 동안 고요의 순간들을 갖습니다. 이 고요는 생활의 일정한 순간마다 잠시지만 조용한 곳으로 물러가는 행동입니다. 홀로 있는 시간입니다. 여러 일과 관계들로부터 잠시 빠져나와서, 침묵하기도 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묵상하기도 하고, 자기 자신을 잊기도 하는 시간입니다. 이 고요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시107:29, 30). 예수님도 이 고요를 위해 늘 홀로 산속으로 물러가셨습니다(막1:35, 눅5:16). 이 고요한 시간을 갖기 위해서는 열심히 일하는 사이사이에, 그 자리에서 한 오 분쯤 자세를 편안히 하면서 말을 단습니다. 마음을 비웁니다. 그날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날의 일을 생각합니다. 내 안에 움직이시는 성령을 느낍니다. 그리고는 다시 일로 돌아갑니다.

#### ⑤ 저녁에

하루의 일이 다 끝나고 달이 떠오를 무렵 눈을 감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를 간단히 돌아봅니다. 마음 가운데 걸리는 일이나 관계가 있으면, 마음 한 귀퉁이에 담아둡니다. 아침에 했던 눈뜨기를 되풀이합니다. 얼굴, 귀, 손발을 가벼이 주무르며 몸을 편안히 합니다. 숨을 쉽니다. 생리적인 숨을 쉬고 난 다음, 생기 숨을 쉽니다. 다시 그리스도께서 뿜어 주시는 성령을 숨 쉽니다. 이때 들이마시며 “주 예수님”하고, 내쉬면서 “허물을 거두어주십시오”(또는 “아픔을 벗겨 주십시오” 등) 하고 소리 내며 기도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담아 둔 여러 걸리는 것들, 실수들, 가슴 아린 것들을 내보냅니다. 몸의 아픔도 내보냅니다. 그날의 저녁기도를 드립니다(시55:17, 마14:23).

#### ⑥ 잠자는 시간에

잠자는 밤도 은총의 시간입니다(시91:1~5).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입니다. 진정한 하루가 시작되는 시간입니다(창1:5). 풍성한 생명의 잔치가 열리는 시간으로서, 물이 포도주로 지음받는 새 창조의 때입니다(요2:1~10). 이 밤 시간에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며(시74:16), 우리는 어머니 품에 안긴 젖뎀 아기처럼 온전히 주님께 자신을 맡깁니다(시131:1-3). 이 시간에 온갖 사랑과 생명의 잔치를 열고 즐깁니다(아3:1~5).

#### ⑦ 주님의 날을 기다리며

매일 생활에서 하는 영성훈련은 순례 여행과도 같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날, 하나님을 뵈기 위한 순례입니다(시42:1, 2). 모든 그리스도인이 영성생활을 통해 기록해지면, 그렇게 된 존재를 주님의 날에 모여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로써 우리들의 삶이 온전히 주님과 하나가 됩니다. 동시에 개인의 영적 삶이 공동체의 것이 됩니다. 역사적인 것이 되고 정치 경제적인 것이 됩니다. 이것이 곧 온전한 안식이요 해방인 희년입니다(레25:8~55). 희년은 하나님을 예배드리기 위해 순례공동체가 선언하는 총체적 구원의 시간이며, 낙원이 이

세계에서 복원되는 새 하늘 새 땅의 시간이며, 생명의 잔치가 온 누리에 열리는 때입니다 (눅4:18~21).

### (3) 섬김 생활 지침

섬김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막10:45). 예수님은 몸소 제자들의 발을 씻기 시며 섬김의 본을 보이시고, 그렇게 살도록 부탁하셨습니다(요13:14~15). 이 섬기는 생활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완성되었습니다. 십자가의 섬김을 통해서 온 생명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에, 섬김은 모든 생명이 함께 복 가운데 살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생활의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는 일에서부터 온갖 섬김을 실천합니다. 이 섬김을 통해 전체가 유익을 얻습니다(고전12:7). 우리의 섬김이 결국에는 우리 자신의 풍성한 생명으로 되 돌아옵니다(고후8:14). 섬기는 생활은 서로의 필요와 부족을 채워줄 뿐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고후9:12~15). 섬김 생활은 그리스도인의 생활 중심입니다. 이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증거될 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 ① 섬김과 거룩한 직분

섬김은 온 피조물이 기쁨 가운데 살기를 바라시며 몸소 몸을 입고 섬기러 오신 그리스도의 뜻을 드러내고 펴는 거룩한 일입니다. 거룩한 일은 성직자들의 몫입니다. 그러기에 섬기는 생활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거룩한 직분을 맡게 됩니다. 예수님은 평범한 사람들을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삼으셨습니다(막2:13~17).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똑같이 하나님의 모습대로 지으신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 개성에 따라 섬김 생활을 할 수 있는 은사를 주셨습니다. 은사는 다르지만, 하나같이 주님을 섬기는 귀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세상에서 우리를 부르셔서, 일꾼으로 삼으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의 변두리가 아니라 한복판에 있는 자신을 발견해야 합니다. 거룩한 섬김의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실천해야 합니다.

#### ② 직업과 일을 통한 부르심

섬김 생활은 우리가 생계를 위해 일하고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것과 동떨어질 수 없습니다. 각자의 인생 목표와 갈등을 일으키지도 않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개성과 은사가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자기를 계발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웃을 섬기는 구체적인 일을 합니다. 이럴 때 직업은 하나님께서 불러 맡기신 소명이 됩니다. 이 직업을 통해서 우리는 생계를 마련할뿐더러, 자신을 완성함으로 삶의 가치와 보람을 경험합니다. 동시에 세상에서 섬기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소명으로서의 직업에는 귀천이 없습니다. 일의 참된 가치는 세상 기준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과 이웃에게 유익을 주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일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아름답고 기쁘게 합니다. 일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깊어질뿐더러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 자라납니다.

#### ③ 은사를 개발한다.

은사는 우리가 복된 생활을 하면서 세상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은총의 선물

입니다. 교회 안에서 복음을 드러내기 위한 은사들도 있고(고전12:27-30), 가지가지 기술과 일에 필요한 은사들도 있습니다(출35:20-35). 이런 은사를 통해서 우리는 자신을 드러내고 표현할뿐더러, 주님을 섬기고 세상을 섬깁니다. 그러기에 은사개발은 자기 개발이며, 구원의 능력을 키우는 일입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은사를 차별합니다. 이 차별이 교회와 세상에서 역할이나 인격이나 직업의 차별로 이어집니다. 은사를 주신 분은 성령이십니다. 은사는 다양하지만 높낮이가 있지 않습니다. 은사를 묻어두고 키우고 사용하지 않으면 게으름이요 죄입니다(마25:14~30). 어릴 때부터 기도하면서 자기의 재능과 관심을 살피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발견하고 키워, 교회와 세상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 ④ 선교에 참여하기

세상에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선교의 영역과 과제가 있습니다. 이 모든 선교를 한 사람이 다 해갈 수는 없습니다(출18:17~23). 사람마다 받은 은사가 다르기 때문에 잘 할 수 있는 선교의 일도 다릅니다. 이 다른 일들이 모여 선을 이룰 때 참 섬김이요 선교입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시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나누셨습니다(눅10:1~12). 초대교회는 은사에 따라 서로 다른 직분을 맡아 주님을 섬겼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은사와 관심, 그리고 직업 따위를 고려하여 하나씩 선교의 과제를 맡습니다. 이 땅에는 인권, 복지, 환경, 통일 등 많은 선교의 영역이 있습니다. 이 중 하나를 정하여 집중적인 관심을 갖습니다. 평생 이 선교를 위해 공부하고, 지원하고, 참여합니다. 이럴 때 우리들의 섬김이 전문성을 갖게 되어 효과적인 선교를 하게 됩니다. 이런 선교들이 모아질 때 개인의 섬김이 하나님 나라로 이어집니다.

#### ⑤ 가정 섬기기

섬기는 생활은 가까운 데서부터 실천합니다. 가정은 일차적인 섬김의 장소입니다. 가정에서 서로를 섬기지 않기 때문에 점점 가정이 깨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홀로 살지 않고 돕고 살도록 가정을 주셨습니다(창2:20~22). 가정은 우리가 넘치는 복 가운데 살도록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낙원입니다(시128). 이 가정에서 우리는 삶의 기쁨과 힘을 얻습니다. 핏줄을 중심으로 하는 전통적인 가정 외에도 날이 갈수록 여러 형태의 대안 가정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어떤 가정이 되었던, 가정은 서로를 배려하고 희생하는 사랑에 바탕을 둥니다. 가정이야말로 서로를 주님을 마주하는 마음으로 대해야 합니다(엡5:21~6:4). 이런 섬김을 통해 가정이 아름답게 유지됩니다. 또 이런 가정이 될 때, 이 안에서 섬김 생활을 자연스럽게 깊이 배우게 됩니다. 가정에서 가족에게 하는 섬김을 이웃과 사회 안에서 실천하면, 그것이 곧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일이 됩니다(막12:31).

#### ⑥ 교회 섬기기

그 동안 교회 안에서 하는 봉사와 교회 밖에서 하는 봉사 사이에 갈등을 빚어 왔습니다. 세상을 섬기는 일은 세속의 영역에 맡겨야 옳다거나, 반대로 교회를 섬기는 일은 세상을 섬기기 위해 오신 그리스도의 정신과는 맞지 않는다고 여겼습니다. 교회 섬김과 세상 섬김은 나뉘어 있지 않습니다. 교회는 세상을 위해 있기에, 교회 섬김은 세상을 섬기는 일로 자라나야 합니다(요3:16~17). 그렇지만 세상 섬김은 주님과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일에서 출발합니다(막14:3~9).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를 위해서, 그리

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사명과 운영과 자람을 위해서 하나씩 일을 맡습니다. 모든 지체들의 섬김을 통해 교회의 신앙과 삶이 온전해지고 자라납니다. 아울러 교회는 교인들의 섬김 생활을 엮어서 그 지역 사회를 섬기는 기관으로 살아갑니다.

### ⑦ 약한 생명 섬기기

하나님께서서는 고난받는 민족의 부르짖음을 들으십니다(신26:5~10). 어려운 처지의 백성들을 지켜보시고 돌보십니다(시146:5~9).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장애우와 가난한 사람들과 죄인들의 친구로 사셨습니다. 초대교회는 유대인 교회와 이방인 교회의 큰 차이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사람을 위한 삶을 중심으로 한 교회가 되었습니다(갈2:10). 이처럼 약하거나 가난한 생명에 대한 관심과 삶은 구원역사의 핵심입니다. 우리 세계에는 사회경제적인 이유, 신체적인 이유, 심리적인 이유 등 여러 원인 때문에 근심과 고난 가운데 사는 이웃이 있습니다. 이 약한 이웃 안에는 자연의 생명들도 포함됩니다. 우리들의 은사와 일의 목표는 이 약한 생명들을 섬기는 데 있습니다. 약한 생명들을 섬기는 일은 곧 주님을 섬기는 일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약한 생명을 섬기는 생활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마25:45).

### (4) 희년 생활 지침

희년의 내용인 하나님 나라는 모든 삶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은총 생활을 통해서 죄되고 불완전한 우리가 복을 누리며 살게 되었다면, 희년생활은 생명생활과 섬김생활을 완성하는 생활이요, 거룩한 생활입니다. 이 땅에 살되 하늘에서 사는 삶과 같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 생활을 통해 끝내는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됩니다. 희년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때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구하고 실천해야 할 하나님 나라 생활이 주의 기도(마6:9~13, 눅11:2~4)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주의 기도는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입니다(눅11:1). 쉼처럼 온 집안과 몸에서 쉼이 붙이고 새길 말씀이요,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의 내용일 뿐만 아니라(신6:4~9), 몸으로 지켜야 할 실천입니다(렘31:33, 마7:24, 25). 하루의 생활과 전 인생을 통해서 주의 기도를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 나라 생활입니다.

### 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부름(마6:9)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부를 때, 우리 자신도 존엄하고 자유롭게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부르는 생활을 함으로써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우상의 자리에 두지 않게 됩니다. 예수님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다정하신 아바라고 부르게 하셨습니다(눅11:2). 아바가 되시는 하나님은 먼 곳에 심판자로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 곁에 계시어서, 우리가 이름을 부르면, 언제나 만나 주시고 함께 해주십니다(대하6:39~40).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한 자녀로 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이웃을 귀하게 대접해야 합니다. 인종, 성별, 사는 지역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형상을 지녔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자연과 못 생명들도 지으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부르며, 모든 생명과 더불어 주님의 한 품에서 생활합니다.

## ②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마6:10)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하시며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막1:15). 이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이루어진다는 소식입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포로 된 사람에게는 해방의 소식을 전합니다. 눈먼 사람에게는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은 풀어줍니다. 복음은 사람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의 삶 안에 정의와 사랑과 평화가 강물처럼 흐르는 총체적 구원이 이루어지는 소식입니다. 이 해방의 희년은 하나님의 영이 활동하실 때 이루어지며, 바로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집니다(레25:8~55, 눅4:18, 7:22). 하나님 나라는 단지 정치, 경제적인 해방에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고백하는 회개에서 출발해서(레23:26~32),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예수께서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우리들의 기도의 주제일 뿐 아니라 구체적인 생활의 목표입니다.

## ③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마6:11)

이 세계는 끝없는 양식을 얻으려고 합니다. 이 때문에 힘을 휘두릅니다. 필요 이상으로 많은 양식을 가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일용할 양식이 부족한 이웃도 생기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날마다 내리는 만나로 살았습니다. 필요한 만큼만 거두면 만나는 모두에게 거르지 않고 주어집니다(출16). 초대교회는 재산을 교회에 바치고 필요한 만큼 나누어 썼습니다. 이로써 참된 풍요가 모두에게 이루어졌습니다(행4:32-34). 일용할 양식으로 사는 일은 모든 사람이 고루 사는 정의 문제요, 지구 자원을 보전하는 생태 문제요, 우리들의 후손도 계속해서 이 지구에서 살아가는 희망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재물 둘 다를 주인으로 섬길 수는 없습니다(마6:24). 모든 사람은 꼭 필요한 것만을 갖고 나머지는 기꺼이 나누어야 합니다. 반대로 일용할 양식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일용할 양식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신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하는 생활과 더불어 모두에게 일용할 양식이 보장되도록 기도하고 일합니다.

## ④ 죄의 용서를 위한 기도(마6:12)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살아갑니다. 이 은총의 삶이 우리 생활에서도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용서해야 합니다(마18:21, 22). 용서는 물질적인 죄와 영적인 죄 모두를 포함합니다. 경제생활을 해갈 때 빚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빚 때문에 귀한 삶이 망가집니다. 나라 사이에서는 엄청난 외채 때문에 채무국의 국민이 큰 고통을 겪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이웃의 빚을 삭쳐줍니다. 우리 삶 가운데 크고 작은 미움이 있습니다. 작은 말이나 행동이 이웃에게 상처를 줄 때가 있습니다. 생각이 다르거나 삶이 다르거나 사는 지역이 다를 때, 미움을 갖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미움이 씨가 되어 모든 평화로운 관계들을 깎습니다. 우리는 이 같은 모든 허물과 실수와 죄를 용서해야 합니다. 근본에서 이웃은 하나님의 한 자녀요, 서로 용서하는 생활을 할 때, 함께 풍성한 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웃의 빛과 죄를 용서하면,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 ⑤ 악과 유혹을 물리치기 위한 기도(마6:13)

생활하다 보면 수도 없이 하나님의 길을 벗어나서 제멋대로 살거나 그릇된 길로 가려는 유혹을 받습니다. 우리가 여러 유혹이나 시험에 드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가 만드는 것입니다(약1:13~14). 우리 안에 있는 여러 탐욕과 어리석음 때문에 우리는 늘 시험에 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려 듭니다. 하나님의 나라와는 반대의 것을 구합니다. 일용할 양식이 아닌 끝없는 양식을 구합니다. 용서하는 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이럴 때 유혹에 빠지고, 죄의 노예가 되고, 악을 저지르게 됩니다. 예수께서도 사십일 동안 사막에서 이런 유혹을 받으셨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써 이겨내셨습니다(마 4:1~11). 우리도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 빠지지 않도록 의지를 다지며 늘 기도해야 합니다. 이 유혹을 이기는 기도는 단 한 번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생활하는 모든 순간마다, 지금 내 행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가를 생각하며, 거듭 드려야 합니다. 이처럼 악과 유혹을 물리치는 생활을 통해 우리가 거룩하게 됩니다.

### ⑥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마6:13)

우리들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러기에 숨 쉬는 모든 생명마다 주님을 찬양해야 합니다(시150:6).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부르는 것으로 시작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기도를 맺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곧 예배입니다. 예배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지만, 동시에 우리 자신을 확인하는 일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우리의 삶의 근원을 알게 되며,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은총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생활을 통해 주님의 날에 드린 예배가 모든 날로 넓혀집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생활을 할 때, 우리는 자기 업적이나 공로에 빠지지 않고 거룩한 모습을 간직할 수 있습니다.

### ⑦ 십자가를 지는 생활(막8:34~38)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셨습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섬김을 실천하셨습니다. 십자가는 자기를 바쳐 하나님을 드러내고 생명들을 살려냅니다. 십자가는 억울한 희생이 아닌 무수한 생명이 사는 신비입니다(요12:24). 십자가를 짐으로 부활 생명을 얻고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에 들게 됩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이 십자가 사랑을 원리와 질서로 짜여있습니다. 이 십자가는 여전히 세상 사람들에게 거리낌이요 어리석어 보이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입니다(고전1:18~25).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합니다(갈6:14). 가정, 교회, 사회, 민족, 인류,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신 못 생명들을 위해 기꺼이 십자가를 지는 사랑의 생활로 우리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예정 가운데 보내신 인생의 사명을 다합니다.